

제403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20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4)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0)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9)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9)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3)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3)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2)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5)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2)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8)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7)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5)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6)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3)
1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
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7)
1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1)
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4)
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4)
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0)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9)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
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9)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0)
2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1)
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5)
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401)

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6)
3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3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
3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
3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3)
3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5)
3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
37.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
3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
3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2)
4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
4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3)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5)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5)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0)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1)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2)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4)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2)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2)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1)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3)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5)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8)
5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6)
5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4)
5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2)
5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4)
6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9)
6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1)
6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6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1)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0)
6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6)
6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6)
6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6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4)
6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4)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7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5)
 7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8)
 73. 업무현황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6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4) 6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0) 6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9) 6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9) 6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 ... 6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 ... 6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3) 6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3) 6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2) 6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5) 6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2) 6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8) 6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7) 6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5) 6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6) 6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3) 6
 1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 6
 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7) 6
 1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1) ... 6
 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4) ... 6
 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4) ... 6
 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0) ... 6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9) 6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 ... 6
 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9) 6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0) 6
 2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1) ... 6
 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5) 6
 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1) 6

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6)	7
3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7
3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0)	7
3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	7
3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3)	7
3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5)	7
3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	7
37.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	7
3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	7
3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2)	7
4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	7
4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	7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3)	7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5)	7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5)	7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0)	7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1)	7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2)	7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4)	7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2)	7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2)	7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1)	7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3)	7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5)	7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8)	7
5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6)	7
5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7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4)	7
5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2)	7
5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4)	7
6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9)	7
6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1)	7
6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7
6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1)	7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0)	7
6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6)	7
6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6)	7
6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7
6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4)	7
6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4)	7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7

7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5)	8
7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8)	8
73. 업무현황보고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소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어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으나 우리 농촌·농업이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 지역 주요 난방연료인 등유와 LPG 그리고 심야전력, 목재와 더불어 농업용 면세유, 전기세까지 폭등해 현장 농민들은 차라리 농사를 접겠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 사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 등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편 현재 축산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유행은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탄소중립 등의 문제를 K-농업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농민들께서는 앞서 언급드린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다점보온커튼 보급사업과 에너지 비용 절감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데 농해수위 위원들과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은 국토녹화 본격 추진 50주년을 맞아 산림청의 역할이 매우 기대됩니다. 산림청이 최근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었던 임업직불제가 제도적으로 잘 자리잡아 가고 있는지 위원님들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관계자들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연초마다 실시하는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해수위 위원님들을 통해 현장의 농민, 축산인,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상임위 모두발언과 질의를 통해 강조해 왔듯이 정책의 시작과 끝은 모두 현장에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오늘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준택 전문위원입니다.

박정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가 약간 완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방역 대책으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편의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좋은 자리입니다.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과 탈의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7분)

○위원장 소병훈 법안 심사에 앞서 법안 상정과 관련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4)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0)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9)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9)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5)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9)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3)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3)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2)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5)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2)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8)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7)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5)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6)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3)
1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5)
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7)
1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51)
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4)
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4)
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0)
2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9)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
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9)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0)
2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1)
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5)
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8401)
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886)
3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3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150)
3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
3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933)
3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5)
3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8)
37.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6)
3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481)
3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2)
4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3)
4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0)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993)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935)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75)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100)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71)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652)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704)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012)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82)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401)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413)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475)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8)
5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6)
5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754)
5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972)
5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854)
6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429)
6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1)
6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6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1)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0)
6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946)
6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976)
6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6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4)
6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4)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7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5)

7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8)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2항까지 모두 7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등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산림재해인 산불의 경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2880여 건이 발생해 5919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주는 등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의 빈도와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임도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산림 관리와 산불 예방·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임업선진국의 5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도 밀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임도 설치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임도 관리 주체를 법률로 규정하고 10년 단위의 임도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임도 설치계획 수립, 유지·관리 의무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임도계획제도를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2항까지 이상 72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3. 업무현황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10시22분)

○위원장 소병훈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관장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상세보고는 생략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주요 업무 계

획과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등 20개 법률 62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23년 예산은 국가 가용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2.8% 증가한 17조 357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도 국제 공급망 불안, 원자재·곡물 가격 및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철저하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2022년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책을 조기에 발표한 직후 산지 쌀값이 16.7% 반등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인 4800억 원과 사료 구매자금 1.5조 원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하였으며 시설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하였고 농업용 전기료의 인상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정 핵심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식량안보와 농업혁신을 두 축으로 청년농·스마트팜·그린바이오·푸드테크·동물복지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의 위축이 예상되고 농자재비·난방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확보, 농가 경영안정 등의 현안에 집중하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초과공급 물량 이상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켰지만 밥쌀의 만성적 공급과잉은 쌀값 하락과 낮은 곡물자급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밀·콩 등의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50만~4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2000ha를 신규 조성하여 1만t 생산 목표로 전담팀을 배치하여 재배기술을 교육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식품기업과의 협업으로 가루쌀 제품과 제과제빵 레시피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수입 밀가루를 가루쌀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 유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5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유사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입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해외농업산림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든든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높은 원자재 가격과 고금리 등 공급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위축 등 수요 측면의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 드리면서 우리 농축산업의 위기 대응력도 높이겠습니다.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하고 재해·수급 상황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 정책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금년에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도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약 1조 원의 정책자금 상황을 1년 동안 유예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3개 추가해서 70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도시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지난해 5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선임대-후매도 등 청년농을 위한 새로운 농지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연계한 청년 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역특화 임

대형 스마트팜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3개소씩 조성하고 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도 완료하겠습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 15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가칭 온라인도매거래촉진법 제정을 완료하고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본격 출범하겠습니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대규모 R&D 기획과 함께 제품 상용화, 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농식품 분야 수출과 ODA를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식품 수출에 역량을 집중하여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농식품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수출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등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싱가포르·네덜란드에 저온유통체계를 추가로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위해 동남아 등에 딸기를 대상으로 공동포워딩을 추진하겠습니다.

K-푸드 인기를 기반으로 파리·뉴욕 등에 해외 우수 한식당 20개소를 지정해서 농식품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중동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데모온실 2개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통해 정보제공·상담·기술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7개국에 K-Rice Belt를 조성하기 위해서 7월까지 MOU 체결을 완료한 후 올해 2000t의 다수확 종자를 생산·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촌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을 조성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소멸 완화와 농업인·도시민을 위한 일터·쉼터·삶터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난개발 해소, 농촌공간 정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발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정을 완료하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제정

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기본방침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적·체계적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협약 대상을 53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완을 위해 사회적농장 17개소와 돌봄마을 3개소를 구축하고 농촌형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소유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 1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의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가금농장에서 63건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 165건의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76건, 미국 260건, 유럽 525건 등 AI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각국이 계란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닭고기·계란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2월은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일제 소독 등 농가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2월 동안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중 발생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ASF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위험요인별 방역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SF 위험지역과 위험농장별로 차별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고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방안을 환경부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한우 수급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공급이 과잉되었고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와 사료비 상승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2월 13일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축된 한우 소비 회복을 위해 농협과 주요 대형마트에서 최대 50%까지 전국 동시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대형 수요처의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차액 지원과 수출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24년까지 암소 14만 마

리를 감축하겠습니다. 한우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한우에 저탄소인증제를 도입하여 사육기간 단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농협 중심의 가격 인하, 소비자가격 조사 결과 공개,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활성화,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분야 재해 대응입니다.

이번 겨울 대설과 한파로 농업시설 125ha, 농작물 5024ha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복구와 영농기반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제주 한파 피해는 신속한 현황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전북·전남 지역은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수지·하천 물 채우기 등을 통해 가용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차관입니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입니다.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입니다.

김정주 대변인입니다.

박선우 감사관입니다.

박순연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입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입니다.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입니다.

박수진 농업정책관입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입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입니다.

김정옥 축산정책관입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황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그리고 국제정세 불안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당면 영농현황 및 과수화상병 방제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전국적인 한파로 일부 시설작물과 월동채소류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생육이 회복 중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월동작물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의 재배농가 대상으로 전염원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기간을 확대하고 발생 지역 중심으로 개화기 방제를 추진하는 등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비 절감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화분매개벌 수급점검 지원과 봉군관리 및 인공수분 요령교육 등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현황입니다.

첫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예측·진단·의사결정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농업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업 R&D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면 중심이었던 농촌지도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기술보급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발농업 노동력 절감을 위해 발작물의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품종·재배기술, 맞춤형 농기계를 함께 개발하고 자동화 요소기술을 적용한 무인 제초로봇도 개발하겠습니다.

농생명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연구자·육종가·종자기업 등 수요자에게 유전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곤충·양봉산물 등을 이용한 신소재 발굴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 부산물을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식량주권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의 수발아 문제 등을 개선한 신품종을 조기에 육성·보급하고가루쌀 생산단지과 연계한 저장-가공-유통 자립형 전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논 재배에 적합한 밀·콩의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무굴작 땅속배수기술을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배면적 확대에 대비한 기반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벼·감자 등의 우량품종 보급을 확대하여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마늘·양파 등 파속채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수입 사료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과 생산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물의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작물의 안정 생산 및 저장·유통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조기경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배출 제로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등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작물별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 사육 여건에 맞는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을 설정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형 벼 품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발가름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 유효수분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 영농 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농촌 활력화와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해 선도농가 멘토·멘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업공간 조성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종합 진단과 분석을 통해 유망작목 중심으로 재편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꿀벌의 강건성 연구를 추진하고 꿀벌 증식장을 조성하여 우수품종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아프리카 쌀 부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CA컨테이너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농식품 수출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진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철 차장입니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조남준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202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1973년에 황폐된 산야를 녹화하기 위해서 제1차 국토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꿔 온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참여와 정부의 노력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115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우리 숲을 선진국형으로 경영관리하여 기후위기와 산림재난 등 국내외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국민과 임업인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림청은 올해를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산림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재난 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산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만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림청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사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사면관리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예비특보제를 도입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병해충 등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찰과 총력 방제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진하는 돈이 되는 경제임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정비하고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전문임업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의 자격요건을 농업 등 유사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를 새롭게 조성하여 국산목재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부터 국산목재 이용을 선도하여 생활 속의 숲인 국산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으로 기능성 원료 등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하는 바이오혁신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임업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태고숲에서 수목장림까지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임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질병 예방과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산림치유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 지는 서해 안면도까지 849km의 동서트레일을 포함한 60여 개의 산림휴양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원과 지역 자원을 접목한 숲정원도시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공익용산지 등을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인 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난아열대 지역의 산림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난대수목원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서 재산권을 침해받는 3만여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토녹화 성공

경험을 지구촌과 공유하는 국제산림협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축적된 우리의 선진 산림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산림협력을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라오스 등의 국가와 해외탄소흡수원 확보 사업인 REDD+ 사업을 확대하여 30년 산림 부문 국외 감축량 목표인 500만t 탄소톤이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분야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국지적 강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과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 입체적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ICT 플랫폼 기반의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산불 예방과 진화 역량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산림청에 신설한 방제대응반을 중심으로 4월까지 감염목 및 우려목 208만 그루를 누락 없이 전량 방제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임업과 산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발굴한 227건의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의 주역인 임업인의 업적과 공로를 재조명하고 미래 여건을 반영한 산림 100년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청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조속히

열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 참석한 산림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섭 차장입니다.

이미라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시혜 산림복지국장입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입니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남성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먼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 강진군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래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제가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안병길 위원님께서 1월 31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농업을 불모로 삼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그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2년 4월 현재 정부양곡창고는 3134개이고요 이 중 1635개가 전남과 전북에 있습니다. 또한 언론이 안병길 위원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한 결과 전남·북에 있는 양곡창고 중 1077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6명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남과 전북에 양곡창고가 많은 이유가 뭐니까? 쌀 재배면적, 쌀 생산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쌀 재배면적,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재배면적 15만ha에 생산량이 74만t 정도 됩니다. 전국 1위고요, 그렇습니다.

위성곤 의원……

○**이양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질의 시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원택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이원택 위원** 위성곤 의원도, 민주당 의원 중에 여섯 분이 발의했는데 위성곤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는 양곡창고가 2개뿐이 없습니다. 2개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북은 464개의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충남은 291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양곡창고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또 임기연장을 위한 포퓰리스트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공산화법을 주장한 이후에 두 번째 잘못된 허위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 6명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를 안병길 위원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병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안병길 위원님께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팩트 체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팩트 체크를 했고요. 단정해서 그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우리 국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 그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명예훼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김승남 위원** 아니,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거지. 그거 안병길 위원님이 유감 표명해야 돼요.

○**이원택 위원** 여기 보면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병길 위원** 단정해서 하지 않았어요.

○**김승남 위원** 저도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유감 표명하셔야 돼요.

○**안병길 위원** 아니요, 저는 유감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단정해서 말

씀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침소봉대하신 거예요.

○**김승남 위원** 아니, 농사짓는 사람들을 뭘로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희용 위원** 당 내에서 말씀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자 책임지면 되잖아요. 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양수 위원**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신 발언에 대한 거면……

○**위원장 소병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분씩 말씀하시지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래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에 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병길 원내부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농어촌위원회에서 하시면 되지 오늘 농림부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 가져와서 하시면 또 오늘 회의하지 말고 파행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상임위장에서 사과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거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농어업위원회에서 하든지…… 당의 일에서 이쪽, 우리 당 행사에서 했던 일이니까 당 행사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이것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지 말자는, 파행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하시고 의사일정 끝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가지고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날치기 다하시고 지금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걸, 그 양곡관리법을 다시 이 업무보고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민주당 행사에서 알아서 대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순서인데?

○**김승남 위원** 아니아니,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 의사진행은 좀 이따가 하십시오.

○**김승남 위원** 안병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발언하신 것에 저도 기회가 되면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이원택 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의 일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양곡관리법이나, 그다음에 안병길 위원이 우리 농해수위 소속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해수위 소관의 업무예요.

농사짓는 분들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 편중돼 있는데 그건 당연한 우리 농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폄하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의원들을 모독하는 거고 국회를 모독하는 거고 농민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안병길 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은……

○**김승남 위원** 아니, 오늘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야 간사, 이양수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병길 위원님의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황근 장관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해 가지고요 남는 쌀에 대한 격리 의무화법, 즉 양곡관리법을 의미하겠지요. 이것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한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장관님께서도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곡관리법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글썄요, 그거 누가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김승남 위원** 대통령실 관계자, 요즘은 대부분 ‘윤희관’ ‘대핵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 여당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 못마땅해요, 정확하게 자기 실명을 밝히든가.

오늘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위험

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당이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위험입니까,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전후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김승남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몰라도 ‘이게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말이에요. 남는 쌀 격리 의무화가 진짜 위험이라면 지금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쌀시장 개방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적으로 40만 7000t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위험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중에……

○**김승남 위원**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기초생활 보장법 만든 것 이것도 그러면 위험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그 발언의 취지·경위를 제가 봐야 되겠는데 그런 논란이 여러 군데에서 있다는 거지요.

○**김승남 위원** 쌀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지도, 모르는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쌀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을 호도하고 저는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쌀을 잘 아는 장관님이 이걸 한마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1월 4일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대통령 말씀은 제가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김승남 위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제돼서 표현을 하셔야지요, 대통령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쌀에 대한 시각은 첫째, 쌀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쌀을 중심으로. 그게 아주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농가의 절반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쌀값은 적절한 선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9월 말에 90만t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한 물량이잖아요.

○**김승남 위원** 장관님, 그건 잘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쌀값이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것 우리 당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다 똑같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쌀값이 폭락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폭락했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김승남 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3% 이상 초과된 물량이지요.

○**김승남 위원** 잠깐만요.

무조건 매입만 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까 3%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

○**김승남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다는 장관님 쌀 생산량을 매년……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논 타작물 재배, 전락작물 재배 이걸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곡관리법의 가장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싹 빼고 의무격리만 계속 국민들한테 호도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농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균형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같아도 얘기하고 있고. 다만……

○**김승남 위원** 장관님, 그리고요 여러 가지 그 논리를 보면 ‘시장격리 의무화되면 타작물 재배나 전락작물 재배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고 과잉생산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장관님께서 이

거 표현을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뿐만 아니고 그건 농업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승남 위원**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품질에서 그다음에 다수확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장관님, 쌀을 심을 때보다 타작물 재배가 더 소득이 높으면 농민들이 굳이 쌀 생산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쌀 생산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농민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요 농사짓기가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의 생존권의 문제예요, 장관님. 그런데 이것을 쌀이 짓기가 편하니까 다시 정부가 타작물 재배를 권장해도 안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추론을 하고 그러십니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어디 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하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 벼농사의 현실이, 우리가 여름에 1년 오는 비의 거의 60~70%가 집중되잖아요, 논에는 거의 물이 차도록 구조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지간한 정성 아니면 다른 농사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고령화된 우리 농가 현실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제가……

○**김승남 위원** 장관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노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나만 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제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논에 젊은 사람들이 콩을 심어요, 쌀 대신에. 그것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경우의 수가 많다 이거지요.

○**김승남 위원** 장관님, 그건 이따 이야기하시고.

다수확 정책에서 고품질화 정책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장관님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고품질화 정책은 쌀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노력해야 되고 이것은 농림식품부의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계속.

○**김승남 위원** 그것을 여기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호도하면 안 되지요, 장관님.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정부가 쌀 생산량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격리하는 게 의무격리고요.

1분……

○위원장 소병훈 예, 1분만 더.

○김승남 위원 그래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일 이게 본회의에 통과가 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저는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사실은 그 문제의식을 제일 느끼는 게 접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 양곡법이 강행됐을 때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1번 타자가 접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게 장관님께서 걱정하고 노심초사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대통령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쌀값 안정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저는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논의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고.

이미 지난 8월 달 업무보고 드릴 때도 둘이 1시간 반 동안 앉아 가지고 30분을 쌀 얘기했어요. 밖으로는 공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곡법을 강행하더라도 전제조건이 논에 타작물이 많이 심겨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고도 남으면 매입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데요.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 해 봤는데, 논에 타작물을 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실제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도 정부가 예를 들어서 1만ha 다른 작물을 심겠다고 했는데 실제 효과는 3분의 1도 안 된다, 그것을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농업인들도, 제가 만난 농업인들도 인정을 하시고. 왜 그러느냐? 그런 제도를 운용을 하게 되면 다른 것 심는 데도, 지금 8~9만ha가 논에 벼 말고 다른 것도 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유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화를 안 하고 그러면 맞는데 의무화를 해 버리면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위원님 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김승남 위원 문재인 정부 3년 때를 보십시오.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2년 동안 보시면요 전혀 논 타작물 재배나 전략작물직불제 해 가지고 늘어나지 않았고요,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양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에 많이 드릴 테니까 그때 하세요.

○위원장 소병훈 이양수 간사님한테 사회권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있을 때는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이고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법을 발의할 때는 그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이게 위헌 사항이냐 아니냐……

○이양수 위원 위원장이 왜 또 민주당 편들고 그러세요?

○위원장 소병훈 아니아니, 편이 아니고 지금 저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당 위원님들이 국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국회 밖에 있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국회의 고유업무인 입법 내용에 대해서 위헌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는 건 정말로 오만방자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입법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지 국회 밖의 다른 행정기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무슨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입법

조사처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고, 위험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법안이 성립된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험 소지가 있다고 하신 관계자께서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외부인이 위험 여지를 언급하는 것이 오만방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실제로 현재에 가서 위험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법안이. 그것은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 누구라도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위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험 소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이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 방면만 보고 추진하시고 있는 법에 대해서 위험 소지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럴 수는 없는 건지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희용 위원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좀 달라서요.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까지 하고 그다음에 바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위험인 것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그 아주 많은 게……

○정희용 위원 아주 많다고 안 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12건입니다, 작년에 12건.

○위성곤 위원 작년에만 12건이라고요?

○이양수 위원 그 전에는 14건.

○위성곤 위원 아닙니다.

○이양수 위원 매년 10건이 넘어요, 위험 판결이.

○위성곤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회기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위험 판결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4건 정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의사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자당인 민주당 편 많이 들지 마시고 여기서 숫자가 적은 우리 국민의힘 편을 좀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2023년 예산 중에 국가예산 증가율보다 우리 농업예산이 오히려 더 높지요? 그래서 2.8% 넘어서 17조 넘게 확보를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농업예산 증가율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장관을 질타하고 맨날 상임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혹시나 윤석열 정부도 이 농업예산 증가율이 더 낮으면 어떡할까 마음을 굉장히 졸였는데 높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로남불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당장 올해에만 그럴 것이 아니고 매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농업예산 증가율이 항상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양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쌀가격이 하락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 위원님들을 말려야 될 것 같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야당 위원님들 말려야 되지요.

○이양수 위원 저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법을…… 혹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장관님이나 뒤에 간부님들도 같이 농림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양곡관리법 추진하신 적 있으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민주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에서 반대했지요. 저는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아는데……

○**이양수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양수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입장 난처하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이 상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법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하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추진하시는 걸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숫자가 많으시니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실 테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농신보 관련해서 지금 적정 운용배수를 굉장히 초과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양수 위원** 이것 작년에도 계속 2000억 이상, 2500억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제대로 우리 신보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정책 보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유념하시고 꼭 이거 예산 당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할 거고요. 사실 번번이 좀 죄송한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예산은 많이 도와주시는데 계속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양수 위원** 금융 당국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농림부의 보다 적극적인 그런 활동 그리고 협의, 협력 이런 게 요구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불투명 농산물 포장상자

는 식약처에서 생산연도 표기를 의무화했어요. 불투명 상자에 대해서 생산연도 표기를 의무화했는데 신선식품은 이걸 안 해도 됩니다. 신선식품은 연도 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배나 사과를 저장할 하지만 상추 이런 것은 그냥 다 소비가 되니까 연도 표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 탁상행정으로 잘못 만들어진 건데 작년에 제가 이것 빨리, 생산연도 표기 실효성 낮으니까 신선식품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현장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예요. 이것 담당 과장한테, 담당 책임자한테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빨리 신선식품 빼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것 제 개인적으로도 전달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도 표시해 놔다가 안 되면 전부다 파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비용 더 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량안보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 해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해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입장 생각해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농업진흥구역 내 농자재판매장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안 해 주고 계세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자재판매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줘야 그 부지를 활용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농자재 사러 저쪽 상업시설·주택시설까지 나가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진흥지역 밖에 좋은 농지도 많이 있어요.

○**이양수 위원** 장관님도 제가 보기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너무 인색해요.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게 주 민원이지만 예전에는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절대농지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우선 수매를 해줬기 때문에 옛날 국회의원들한테는 절대농지 해달라고 민원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절대농지가 전혀 아니고 위치상도 마을 내에 있거나 이런 데 있는 데도 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자체에 권한을 이관해서라도, 지자체도 막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다 그런 것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저것을 갖춘 조직이기 때문에 진흥구역 내 농자재판매장 설치 정도는 지자체한테 이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말씀이니 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농지가 지금 가만히 놔둬도 1년에 1만 5000ha 내외 줄어들거든요. 앞으로 100년 지나면 대한민국 농지 없어집니다.

○**이양수 위원** 그렇게 안 없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양수 위원** 농자재판매장 만들어 갖고 절대 안 없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아니, 지금 진흥지역이 80만ha 있어요, 발하고 논 다 합쳐서. 80만ha면 우리 농지의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흥지역 밖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물론 지역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이양수 위원** 저 1분만.

그러면 지자체한테 소요를 파악해서라도, 여기는 농업진흥지역밖에는 안 되는 지역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런 것……

○**이양수 위원** 멀리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런 소요 정도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하여튼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로 이렇게 해 나가신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뭘로 보느냐? 저는 가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키워 봤는데 결국은 그 문제로 접근을 하면 웬만한 것 다 풀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키울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게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양수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건 장관님 생각이시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제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이양수 위원**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을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출생 후 6개월 이상 사거나 팔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해서 팔아요. 그러면 그걸 또 계속해서 사 가지고 잘 키우다가도 유기를 합니다. 유기를 하면 또 유기견이 되어 갖고 유기견센터에 갔다 거기서 계속 안락사시켜요. 한쪽에서는 계속 안락사시키고 한쪽에서는 계속 생산하게 만들고,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출생 후 어느 정도 이상 기간이 되어야 하지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을 아예 폐쇄하든지…… 그 강아지, 고양이가 평생 계속 아끼만 낳다가 하는 게 진짜 저는 동물 복지·보호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금년 4월에도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고 또 내년 1월부터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 만들어 났고 하니까요.

○**이양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님, 세월 빠르지요. 벌써 계묘년 입춘 지나고 우수가 지났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에 그래도 아름다운 봄, 희망 있는 봄을 만들어 드리려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이 장관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원님께서

시인이어서 그런지 좋습니다.

○서삼석 위원 저는 결코 시인이 아닙니다.

한전, 농사용 저온창고 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뉴스를 접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서삼석 위원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한전이 발 빠르게 2월 달 안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줬어요.

중요한 것은, 장관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있었다고 또 답변하시면 지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전하고 산업부에 확인을 했어요. 농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나 거론이나 협조 공문을 낸 적이 있느냐까 전혀 없었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 누가 답변했는지 위원님께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길어진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장관한테도 얘기했고 차관이 차관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줘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옆에서 얘기했는데……

○서삼석 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관심 갖겠습니다, 더.

○서삼석 위원 농작물과 농산물에 대한 규정, 한계 이것도 농림부가 차제에 확실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우리 농업·농촌 기본법에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보면 소위 가공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전에서 부과를 하는 건데……

○서삼석 위원 그러니까 한전이 2월 달 안으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농림부가 농민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서삼석 위원 그다음 소값 문제인데요.

사료값, 수급 관련, 대육시장 성장 이것은 장관이 개별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향 일로에 있는 소값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농림부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축산업이 산업 구조에서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었을까 대책이었을까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그런 모순된 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마트에서 반값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단기적인 방법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사료 자급률을 높인달지 사육두수를 한정시킨달지 그다음에 솔직히 대육시장의 성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축산농가나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본이 적정 두수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정부가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한우는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조직화돼야 되고.

일본 잘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지역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마릿수를 제한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건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폭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인력 문제인데요.

지난 국감 때도 대두됐던 건데 기재부가 2018년에 농식품부 농업인력육성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에서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2018년이요?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농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통과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시행을 앞둔 법에 이런 문제점들이 잘 녹아나서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심각한 인력 문제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가뭄 문제인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관행적인 대책을 넘어서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에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

이것도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5년째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한다, 한다 해 갖고 최종 3월 말 수립을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때 가서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기재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서삼석 위원** 아니, 몇 번 한다고 해 놓고 안했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발표할 거고, 그 전에 위원님께는……

○**서삼석 위원** 발표 시점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내용이 중요하죠.

○**서삼석 위원** 그 내용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아까 양곡관리법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쌀 가격을 우리 정부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얼마로 보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과거 통계 방식으로 18만 5000원 선이고 통계청에서 요즘 새로 추계하는 방식 가중치로 하는 게 18만 원인데 과거 5년 평년으로 보면 19만~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범위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1년에 농업진흥구역

이 얼마나 감소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농지가 한 1만 5000 정도……

○**박덕흠 위원** 1만 5000ha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만 5000ha 정도, 조금씩 다름니다마는 대개 그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 정도로 줄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농자재 같은 경우에 그거 사실 공익형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익형으로 해서 산단 같은 경우에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1만 5000ha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도로도 나고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다양한 용도로 지금……

○**박덕흠 위원** 아파트 단지도 이게 풀리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것 만들면……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지금 쌀이 이렇게 남아 도는데 매년 어차피 쌀 수요는 줄잖아요, 인구가 줄고 또 쌀 먹는 분들도 줄어들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농업진흥구역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재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 뭐라고 그럴까, 논으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쪽은 좀 풀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량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보전을 해야 되고.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거기서도 지역별로 조금 문제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쌀 수급하고 공급 이렇게 조절이 그런 면에서도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쌀뿐만 아니고 우리가 밀도 재배해야 되고 콩도 재배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농지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량 농지하고 덜 우량한 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올해 안에는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인삼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보면 수요·공급으로 인삼 가격도 결정이 되지요. 그렇지만 하락 폭이 큰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가 개입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그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데 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질의를 했을 때 정부의 계획 중 하나로써 계약재배 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장관님.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계약재배요?

○박덕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인삼이 통상 우리가 아는 6년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인삼공사하고 농협, 한삼인을 만드는 농협에서 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걱정이 없어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재배 비율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나서 얼마나 확대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그때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현재도 수출이 좀 늘고 있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난해 중국이 첫 다운되면서 조금 정체인데 금년부터 좀 더 좋아질 것……

○박덕흠 위원 그것도 현황을 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먼젓번 월요일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인삼농가들이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당시 인삼농가들이 요구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인삼농가들이 요구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인삼을 심으면서 6년 정도 동안 빌려 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그 금리를 좀 내려 달라는 것하고, 그것을 상환할 기간이 도래가 되니까 이것을 좀 길게 장기간으로 해 달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경영회생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도 낮고 기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박덕흠 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삼값 폭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 정부에서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셔서 그게 되면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출이자 상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인삼을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식재자금 거치 기간 그런 경우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잘 하셔서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소비 촉진도 해야 되고…… 예.

○박덕흠 위원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이 또 한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가격이 폭락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지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림부하고 농촌경제연구원하고 2019년부터 사육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위험하다 계속 경고를 하고 줄여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상 소비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입식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10만 두 정도를 적정 두수로 보는데 금년에 358만 두까지 됩니다. 10% 이상 오버가 되니까, 그러면서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소비 둔화에 따라서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박덕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육값에 또 큰 원인이 있고, 작은 한우농가의 가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쳤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사료 가격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선 1차로 2월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인사말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2024년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현재 신청은 9만 두가 돼 있고 감축은 금년에 3만 두 할 거고 추가로 5만 두 정도를 한우협회하고 대농가 중심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올해 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박덕흠 위원** 내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계획은 금년 상반기까지 나올 거고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어쨌든 24년도까지 14만 마리를 감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하고 내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반기까지 한 10만 마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도 장관님, 농민들의 아픔이 상당히 큼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맞아요.

○**박덕흠 위원** 그래서 쌀농가도 있고 인삼농가, 한우농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했잖아요. 통과를 했는데 그렇다면 인삼관리법도 만들어야 되고 한우관리법도 만들어야 돼요.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 요구가 실제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지나면 인삼관리법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저도 인삼 관련해서……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오래전에 보면, 저희들 젊었을 때 그때 보면 인삼 농사짓는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요즘은 인삼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몇 가지 박덕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인삼 제품의 신뢰성에 굉장히 큰 손상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홍삼 제품 정가 30만 원짜리는 자기들이 만들면 1만 5000원이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만 원이라고 가격을 매겨 놓고 70% 할인해서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인삼 함량이 아주 극히, 한 방울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 되어서 인삼 제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인삼의 유통에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삼공사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요즘 가격이 떨어지는 게 파삼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생기지 않은 것 있지요. 이렇게 모양도 그렇고 조금 상처도 있고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소위 홍삼, 병에다 담아서 홍삼즙이라든가 홍삼엑기스라든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원료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다 하지요. 하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형 인삼 제품 공급업체만큼 공신력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여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농업이라는 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소비자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인삼 농도가 높은 것은 또 잘 안 먹어요. 오히려 정말 인삼 함량이 덜 들어간 것 이런 쪽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또 다르게.

그래서 그런 소비자 변화하는 행태,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정부가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아무튼 부처에서도 인삼농가의 입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조금 이게 과잉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균형이 맞으면 괜찮은데 아마 내년까지는 조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신정훈 위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장관 생각입니까? 그렇게 건의하신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일단 아직 건의는 안 드렸지요, 시기적으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다만 지금 정부 내에서……

○신정훈 위원 그렇게 건의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신중히 검토를 할 건데 가급적 이것은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훈 위원 건의하실 건지 안 할 건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아까 대놓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농업에 너무……

○신정훈 위원 대통령의 거부권, 장관 생각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신정훈 위원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정부 논리 중에 대단히 모순적인 것, 아주 빈약한 논리로 대통령의 생각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모순적이에요. 대단히 모순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어떤 점이……

○신정훈 위원 방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쌀농사의 재배면적이, 쌀이 과잉이라면 재배면적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농업진흥구역 해제하자는 여당 위원들의 얘기에 반대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 쌀만 재배……

○신정훈 위원 당연히 해제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쌀……

○신정훈 위원 남아도는 쌀, 면적이 남아도니까 줄여야 된다는 현장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쌀이 갑자기 늘어나겠지요.

○신정훈 위원 그래요,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신정훈 위원 저도 해제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리고 쌀 소비가 지금은 줄지만 늘 수도 있는 거지요.

○신정훈 위원 내 이야기 들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늘 수도 있는 거지요.

○신정훈 위원 장관이 지금 시장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시장기능이 작동하려면 농지가 유연해져야 되는데 농지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지는 한번 훼손 되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신정훈 위원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신정훈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농사는, 거기에다 콩 농사짓기도 어렵고 인삼 농사짓기 더 어려워요. 논농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쌀농사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신정훈 위원 그리고 농지법이 뽕뽕 묶고 있어요. 농지를 뽕뽕 묶어 놓고 어떻게 쌀이 시장기능이 작동합니까? 안보를 위해서는 농지는 보호해야 되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근데 위원님……

○신정훈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아니, 이것은……

○신정훈 위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이것……

○**신정훈 위원** 들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것은 분명히 하고 가자고요.

○**신정훈 위원** 들어 보시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논에……

○**신정훈 위원** 들어 보시라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잘 들어 보세요. 웃을 일 아니에요. 무심코 던진 말이 우리 농민들의 가슴에 어떤 못을 박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최근 10년간 농지전용허가 면적 한번 비교해 봤어요. 어떻게 지금 이 농지전용면적이 증감됐는지 알아요? 수도권, 특히 서울은 232%가 증가했어요, 10년 동안. 대전 57%, 대구 33%, 세종 30%, 대도시권의 농지는 이렇게 해체하면서 경남 지역 얼마나 해체됐는지 압니까? 2.1%예요, 10년 동안. 전남 4.3%예요, 전북 5.8%예요.

왜 지금 전남 농민들이, 전남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을 매는가? 정부가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쌀농사를. 풀어 줘야지요. 풀지도 않으면서……

저는 식량안보론자입니다. 농지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무를 다하자는 거예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농지전용허가 건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경기도가 전라남도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허가 건수가 1만 9000건, 전남은 6000건이에요. 3분의 1도 안 돼요. 전남 농민들이, 전북 농민들이, 경남 농민들이 이 진흥구역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니깐요.

장관님, 가격이 높다고 해 가지고 논농사를 인삼 농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못 바꾸는…… 바꿀 수는 있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신정훈 위원** 그런 일부의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의 생각을 호도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과장되어 있어요. 지금 10년 동안 무려 46만t이 평균 과잉이라는 이 연구 결과가 얼마나, 이 숫자만 가지고도 얼마나 황당해요? 1년에 1조 원 이상씩의 정부 재정이 낭비된다는

것 그것도 너무 과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모순적이에요.

지금 이 정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면 쌀값 떨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떨어지면 어떤 농민이 더 식량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더 늘어납니까?

쌀값이 오르면 농사를 더 짓는다고 해요. 나는 그것도 틀린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면적이 늘어요? 그런 정신 나간 농민들이 어디 있어요?

전제와 논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가지고 대통령 생각 그렇게 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책임져야 돼요, 역사적으로 농민들에게 책임져야 된다고. 여기에 있는 신정훈 위원이나 이 위원들이 농촌 실정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장관으로서……

○**신정훈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저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지 혼자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신정훈 위원** 예,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것 묻고 이야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신정훈 위원** 평년작만 되어도 현재의 20만t이 과잉이라는 정부의 자료 인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인정합니다. 20만 t 이상이라고 보고……

○**신정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신정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책 세우고 있는 게……

○**신정훈 위원** 아니, 예측이 가만히 있어도, 평년 농사만 되어도 20만t이 과잉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래서 가루쌀을 매개로 해서 이모작도 하겠다……

○**신정훈 위원** 농지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농지는 안 줄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지도 줄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만 5000ha씩 줄고 있고.

○**신정훈 위원** 가루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충분하지 않지요. 그래서……

○**신정훈 위원** 충분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시기적으로 일시적인 과잉이 오면 작년처럼 격리도 하겠다……

○**신정훈 위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시적으로는 적극적인 생산 조정을 통해서, 콩·사료작물·옥수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생산 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저도 찬성이라니까요.

○**신정훈 위원** 가루쌀 동의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찬성인데, 다만……

○**신정훈 위원** 적극적으로 생산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런 과잉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위원님 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뭐냐 하면……

○**신정훈 위원** 최소한 20만t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 논리인데 동의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다니까, 똑같은데요.

○**신정훈 위원** 20만t 정도를 조정하는데도 과잉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한 4만ha를 다른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정훈 위원** 좋아요, 좋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말씀에……

○**신정훈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생산 조정을 하고 나서, 농사라는 건 모르잖아요. 풍년 농사가 될 때도 있고 흉년 농사가 될 때도 있으니까 일시적인 과잉이 극히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시장격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낭비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시적으로는 생산 조정을 해서 적정 균형 생산하고 만약에 그래도 발생할지 모르는 일시적인 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무화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면적을 4만ha 정도 줄여야 20만t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버 대신 다른 것, 그러니까 밥쌀 대신 다른 것 심자, 100%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차이가 뭐냐 하면 의무화를 하게 되면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가 다른 용도로 심으려고 하던 사람도 그쪽으로 안 간다, 그다음에 기이 다른 것을 심고 있던 분들도 쌀을 안정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면 그 농사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편하니까 그쪽으로 온다, 그래서 그게 상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물 심는 것은 저는 아주 대환영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것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다만 의무화만 하지 말자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가 얼마든지 격리하고 있는데 왜 의무화해서 굳이……

○**신정훈 위원** 30초만 더 제가 그냥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굳이 쌀 과잉이 뻥한데 왜 그쪽 길로 가시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신정훈 위원** 왜 농민들한테는 쌀농사 의무화를 하고, 농지는 사실은 여당 입장이거나 장관 입장에서 보면 농지공산화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쌀농사를 의무화한 적이 없지요. 아니, 쌀농사를 누가 의무화합니까? 말씀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신정훈 위원** 아니, 논농사 진흥구역에 그러면 다른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진흥구역에 쌀 심으라고 누가 의무화합니까? 콩도……

○**신정훈 위원** 저렇게 불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말씀……

○**신정훈 위원** 불량한 이야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신정훈 위원** 아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다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지금 진흥구역 거기다가 스마트팜도 할 수 있고 채소할 수도 있고……

○**신정훈 위원** 쌀농사 지으라고 누가 강요했나요? 그러면 농지를 풀어 줘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들어……

○**신정훈 위원** 농지를 묶어 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어디요?

○**신정훈 위원** 이게 공산화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누가 농지를 묶어 싸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신정훈 위원** 왜 농민들은 의무를 강요하고, 정부의 의무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한 농지는 우리가 진흥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지를 하되……

○**신정훈 위원** 우량한 농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남, 전북……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다만 거기에다가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데……

○**신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추가질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업인이 벼를 안 심겠다고 그러면 안 심을 수 있는 거지요.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정훈 위원** 듣는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불량한 심보예요.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보충질의 때 더 하시고요.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 취지대로 하면 지금 쌀 재배면적을 줄여서 생산량을 줄여야 쌀값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밥쌀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안호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낸 양곡관리법 취지로 한다면 의무적인 시장격리를 하게 되면 쌀 생산량이 줄지 않을 거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조금,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쌀의 생산량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연구 결과와도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장관께서 하고 계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안호영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제 의견이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논 타작물 지원사업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시장격리,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줄어서 시장격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제는 증명되지 않고 또 학술적으로도 연구되지 않은 말씀 하셨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보려고 하는 것은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건데 현재 쌀 생산과 관련해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약 19만 원에서 20만 원대는 돼야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딱 정해 놓고 적정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평년 가격이 그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18만 5000원은 좀 낮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정해 놓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안호영 위원** 평년적으로 그런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19만에서 2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업인들 시각도 그렇고요.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쌀값이 말이지요 현재 2월 달에 쌀값이 통계 방식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가중평균 가격으로 따지면 18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8만 원이고 엇그제, 2월 15일 날 발표한 게 조금 올라가서 약간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18만 원이고 과거 방식으로 하면 18만 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안호영 위원** 18만 원 전후로, 왜냐하면 가중평균 방식으로 하면 19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8만 원.

○**안호영 위원** 아니, 19만 5000원대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다음에 전에 하던 평균 개념으로 하면 18만 5000원……

○**안호영 위원** 18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정부가 원래 45만t을 매입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계획된 물량대로 다 매입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공공비축이 45만t이 있고 격리가 45만t이 있잖아요. 45만t 중에서 2021년산이 넘어온 것 8만t을 빼면 37만t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약 30만t 남짓 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아직 7만t 정도가 남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가 쪽에서 그만큼 쌀을 안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왜 그것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매입을 우리가 계속 내라고 연장, 연장하고 있고 지금 2월 말까지 연장을 해 봤는데 아마 두 가지 같아요. 농가에서 내놓을 사람들은 다 내왔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으면 단경기 때 분명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 지금 예측하는 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애기드리는 것은 현장 애기, 전문가들 애기를 전해 드리는 겁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쌀값이 17만 9000원대나 18만 원대 초반인데 예를 들어서 19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가 만약에 적정 가격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조금 더 올라야 좋을 것 같은데, 오르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원래 매입하기로 했던 시장격리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농가들이 안 내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내야 될 농가는 다 낸 것 같고, 아마 대농 중심으로 분명히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정부가 지금 RPC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산물벼가 한 10만t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3만t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이것을 정부의 양곡창고로 이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산물벼는 일반 비축하는 것과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쪼은 상태로 일단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여러 재고량도 지금 185만 7000t 정도가 되고 있고 이런 재고 물량들을 시장에 방출하거나 또 매수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매수 안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매입이 덜된 7만t은 2월 말까지 연장해서 최대한 매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산물벼 13만t 이것은 RPC에서 일단 맡아 주고 계신 거지요.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해서 RPC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적정 쌀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우려 안 하시도록.

○**안호영 위원** 만약에 2월 달까지 매수가 안 되더라도 좀 기간을 연장해서 필요하면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통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원래 쌀값 통계 관련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단순평균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통계청에서 계속 그동안 주장을 해 왔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일거에 하면 시장에서 혼란이 오니까 기존 하던 방식을 병행하자 해서 지난해 말까지는 병행을 했던 거고, 통계청에서 두 가지를 다 발표했던 거지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중치만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농림부에서 과거 방식으로 평균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발표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제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상황을 검토해서, 어쨌든 우리 농가한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안호영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중평균 방식보다는 단순평균 방식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중평균 방식을 유지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위성곤 위원** 축발기금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 내역하고 원래 사업 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금년도 것?

○**위성곤 위원** 예, 금년도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원장 소병훈** 다음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저도 양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또 지금도 본가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쌀값이 안정돼서 우리 쌀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법이 과연 쌀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농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저나 정부에서는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그런 의견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아마 오늘이 양곡법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되기 전의 거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할 때는 장관님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 얘기를 들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 현장 농업인들도 지금 생각을 많이 바꿨거든요.

○**안병길 위원** 현장 농업인들 이야기와, 저는 더 중요한 게 전문가들이나 전문기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장기적인 예측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이게 부작용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하게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쌀을 우리가 주로 밥으로 먹는데 소비량 자체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그에 따라서 감소가 되면 시장에서 균형을 이뤄서 문제가 없는데 생산은 그것보다 덜 줄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잉기조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연간 20만t 정도 과잉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 양곡법이…… 양곡법의 요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음 연도 수요량의 3% 이상 생산되면 그 초과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두 번째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라.

두 가지인데, 첫째 논에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안병길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의무화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의무화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남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남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될 많은 돈을 써야 된다.

○**안병길 위원** 그렇지요.

요약하자면 당장은 농민들에게 보전을 해 주면 생존권 보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상향해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 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전문기관, 정부에서 ‘아니다, 거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러면 이 법을 재고하고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당장 이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몸매 좋은 약 초라고 이렇게 던져 줬는데 알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장복을 하면 죽는 독초더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조차도 민주당 위원님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믿지 않고 뭘 믿는단 말입니까.

저는 이게 당장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약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 안 지나서 곧 독초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것을 대통령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장관님이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여튼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게 시행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꼭 건의드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가격도 폭락해서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까 말씀 중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암소 14만 마리를 내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지금 암소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 있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많이 늘었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게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량이 줄어들었는데 왜 갑자기 암소 사육두수가 늘어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코로나 때문에 소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식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안병길 위원** 코로나인데 왜 한우 소비가 늘어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보장되니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자제를 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입식을 한 거지요.

○**안병길 위원**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코로나 때 그때 재난지원금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요인이다, 가격이 보장되니까 사육두수가 계속 안 떨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실제 ‘소고기 사 먹자’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도 많았고.

○**안병길 위원** 사 먹자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나서서 ‘재난지원금 받아서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은 농림부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장관님,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신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쌀 생산량 전국 1등 도시, 당진 농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현장에 가서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덕 농촌지도사회 연시총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거의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하시는 걸 보니까 듣지 않

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통계 조작이 가능해요. 저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구 위원** 정부 용역을 많이 해 봤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걸 모델이 오픈돼요.

○**여기구 위원** 전문가 얘기 들을 게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겁니까? 정말 농민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것 아니잖아요. 장관님도 시골 출신이고, 이번에 천안에서 국회의원 나간다고 천안에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것 똑바로 처리해야 당선돼요,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오늘 서울신문 아침 보도예요. 보도 보니까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 양곡관리법 이번 개정안이. 또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와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이 두 법을 거부하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정부 내에서는……

○**여기구 위원** 이게 당정 합의사항입니다, 서울신문 보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다른 건 몰라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적이냐는 말이에요. 농민들은 지금 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부정적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유가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 양곡관리법 개정. 수십 년간 양곡관리법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데 이게 거스른 겁니까?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께서 지역구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아니는데……

○**여기구 위원** 이게 그동안 쌀값 안정화에 계속

정부가 정책 기조로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거스른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리가 쌀 과잉 문제에 부딪혔던 게 2000년부터예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일관되게 다수확을 줄이고 고품질로 가자는 게 기본 정책 방향이고……

○**여기구 위원** 그리고 쌀 가격 안정화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할 때 그때는 변동직불제였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직불제도 바꾸었고……

○**여기구 위원** 지금 농민들이 차라리 변동직불제로 가게 해 달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변동직불제 때 지원되는 게 1조 3000억 정도 됐어요.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어 온 양곡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금년도에 우리가 직불제로 들어가는 게 2조 8000억 원이에요. 배가 넘어요.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곡관리법 하면 1조 원 들어간다고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도를 바꾼 것은 농업인들한테 확실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다만 저도 위원님처럼 쌀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저는 시골에 땅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왜 목숨 걸고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게 공산화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농업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여기구 위원** 무슨 도움이 안 돼요? 해 보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요. 재정 걱정하는 것 기재부장관이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농림부장관이, 농민의 아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림부장관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구 위원** 양곡관리법이, 쌀값이 농민값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도대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구 위원**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구 위원** 그리고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쌀 가격을 시장에 맡기려면 절대농지 같은 것 다 푸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점진적으로 풀고 있잖아요.

○**여기구 위원** 다 풀어요, 완전히 풀어. 그러면 쌀농사 짓는 사람 짓고 팔아먹고 거기다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풀어 줘. 그것은 묶어 놓고서는 쌀값만 이렇게 규제하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진흥지역 갖고 얘기는 하지 마시지요. 그것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쌀농지는 다 규제해 놓고, 진흥지역 다 묶어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이 논란에다가 끼워 넣으면 도움이 안 돼요.

○**여기구 위원** 쌀값은 시장에 맡긴다면…… 아니, 자유시장 지금 좋아하잖아요. 다 풀어 버려요, 그냥 썩. 그리고 농민들도 땅을 팔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노인네들, 어르신들. 다 묶어 놓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가 그래서 가루쌀로 해서 전략직불제도 도입하겠단……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 3%·5% 조건이 허락할 때만 개입하는 것 아니에요. 3%·5% 조건이 허락되지 않도록 가루쌀도 개발하고 타작물도 하고 이런 정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게 안 된다, 농민에 도움이 안 된다, 공산화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의무화 안 해도 정부가 개입할 것 다 해요.

○**여기구 위원** 가서 농민들 얘기 들어 보세요. 농민·농업 총회도 많이 하고 지금 농협 운영공개도 하고, 현장 가 보시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농업인단체, 38개 단체가 하지 말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세요?

○**여기구 위원** 누가 발표해요, 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심지어 쌀전업농도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찬성했는데.

○**여기구 위원** 누가 반대를 해요? 쌀전업농연합

회 회장하고 이원택 위원님하고 거기 와 가지고 다 규탄대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분들 성명서 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구 위원** 누가 성명서 내요?

○**신정훈 위원** 그게 흑세무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왜 흑세무민이라고 그러세요?

○**신정훈 위원** 그게 과장된 이야기예요.

○**여기구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신정훈 위원** 전업농 여론조사 한번 해 봅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다음에 제일 큰 단체가 한농연 아닙니까, 한농연.

○**신정훈 위원** 한농연 여론조사 한번 해 보자고요.

○**위원장 소병훈**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구 위원** 이게 그동안 해 왔던 식량정책 방향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거절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고요. 변동직불제 다시 도입합시다. 다시 원위치 갑시다. 같이 가지요.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변동직불제로 가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지금보다 직불제 절반으로 깎아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구 위원** 아니, 변동직불제 해 달라는 거예요, 쌀농사 짓는 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공익직불제로 바꾸면서 배가 늘었어요, 농가에 관한 직불금이.

○**여기구 위원** 아니, 그것은 밭농업하고 같이 추가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거의 논 쪽이 주입니다. 거의 논이 주입니다.

○**여기구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쌀 얘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쌀 쪽으로. 그다음에 농가가 왜 쌀만 재배합니까? 벼도 재배하고 밭작물도 재배하고 그러지요.

○**여기구 위원** 장관님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농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한우 가격 어떻게 해요, 한우 가격.

작년에 쌀값 대폭락 지금 한우값 대폭락, 한우 파동…… 소가 소를 잡아먹다가 소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여기구 위원** 이거 지금 정부에서 무슨 대책 세우고 있어요, 무슨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협하고 한우협 회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여기구 위원** 지금 하나로마트, 대형마트에다가 한우 세일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동네 정육점 다 죽어요. 현장을 좀 알고 얘기하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면 위원님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만 4000t이 남아돌아요, 금년에 8만 두가. 8만 두를 쌀 같아야 정부가 구매해서 비축을 하지요. 이걸 고기잖아요. 고기는 어쨌든 소비를 촉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작목은 할인해서 팔아도 그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유독 한우는 1만 원을 쓰면 1만 1000원의 소비 확장 효과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 보면. 그래서 농협하고 우리가 정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혈세를 투입해서 소비를 확장하겠다, 우선은. 남아도는 소를 우선 없애자 그다음에 수출도 적지만 수출 확대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지요.

○**여기구 위원** 한우 가격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李達坤 위원** 다른 질의를 준비했는데 양곡관리법이 이렇게 또다시 특히 야당 위원님의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더 지적하기 전에, 우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회하고는 소통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18대부터 국회를 쫓관측해 왔는데 그때에 비하더라도 접촉이 적습니다. 아마 그게 세종시로 내려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야당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장관님이 반박하는 데 수치로써 충분히 제공되었어야 할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방식에 있는 거예요, 결과 예상에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두 가지 다지요.

○**李達坤 위원** 두 가지 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李達坤 위원** 방식도 수용할 수가 없고 결과도 마이너스로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습니다.

○**李達坤 위원** 오케이.

그러면 말이지요 이원택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그 모델에 대해서 질의를 수차례 하셨어요, 작년에. 그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가 잘못되었다,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랬는데 그것에 관한 후속 자료가 제공됐습니까? 그 질의에 관해서 답변이 제공되었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李達坤 위원** 아니, 여기서 질의를 하셨는데…… 회의록을 보세요. 나도 그것 보고 싶었어요,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무슨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李達坤 위원** 질의하실 때 그 모델에 기초해 가지고 이원택 위원님이 이런 전제가 잘못됐다, 이런 파라미터는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다니깐요.

위원님, 그러셨지요?

○**이원택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걸 반영을 해서 두 번째 연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李達坤 위원** 그 두 번째 연구 결과도 우리한테 미리 보급됐습니까, 공급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회에 당연히 제출이 됐지요.

○**李達坤 위원** 이원택 위원님, 보셨습니까?

○**이원택 위원** 지금도 아직 KASMO 모형에 대한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李達坤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요, 그것은……

○**이원택 위원** 그게 장관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모형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李達坤** 위원 그렇지요. 모형에 대해서 지금 안호영 위원님과 신정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그 모형의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파라미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파라미터를 고려해 보고 그다음에 약간 민감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모델에 의하면 어렵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차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비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야당 위원님이 그걸 보지 않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정치지. 그리고 야당 위원 세 분께서는 특히 질의하실 때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는데도 대답이 지금 전부 다 상반되는 거예요, 자료가. 물론 예상치에 대해서는 상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데이터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분명한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또 농림부에서 야당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李達坤**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나도 보고 싶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다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李達坤** 위원 아니, 나도 그 자료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있다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이 모델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모델 하나 만들어 야당 위원님 입장에서 한번 돌려 보자 이거야.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아니에요.

방식에 대해서 장관이 이것은 과도하게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의무화를 하고 또 다른 농축산식품 그다음에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 방식이 확산되면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면 내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큼니까, 예상이 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두 가지 달라니까요.

○**李達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예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합의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지금 당장 한우값은 더 하지요. 반값으로 세일했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요, 한우도.

그다음에 내가 참 오랫동안 알고 있는 윤재갑 의원이, 내가 몇 치 문제를 꺼냈어요. 지금 농민에 비해서 어민은 훨씬 소득도 적습니다, 전업 어민 들은요. 그런데 그중에 몇 치 하는 사람들은요, 몇 치 가격은 100%씩 변동을 합니다. 그러면 소수의 국민이 하는 생업은 관심 대상에서 빠지고 농민이 백 몇십만이라서 그 사람들만 지금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게 정치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 방식에 대해서 만일 장관님이, 우리 정부도…… 나도 이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방식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상은 모르겠어요.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100년 뒤에 농지가 없어진 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100년 뒤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공급량은 그대로 두고 말이지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당 폭으로 내려갈 것이 보인 다 했을 때 정부가 규제하러 들어올 수 있겠어요? 보장을 해 줄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못 하지요.

○**李達坤** 위원 예를 들어서 10%다 이럴 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런 방법을 동원 하겠지만……

○**李達坤** 위원 생각해 보세요. 국회를 선진화하고 싸움을 말린다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건 조정 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도 안 돼. 야당 때문에 안 돼, 우선 숫자가 많으니까.

왜 우리가 못 가느냐? 야당은 당론 비슷한 걸 가지고 처음부터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백 마디 하고 100시간을 토론해도 그걸 밀어붙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당신들하고 안건 조정했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입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 이런 교착 상태를 지혜롭게 행정부에서 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 주는데 행정부에서 만일 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 문제도 있고 또 농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으

니 시장에 나와서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시장이 너무 심하게 형성되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안을 제기하면 우리가 안전조정위에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래서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정부가 얘기한 것은 의무화는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의무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李達坤 위원** 의무화 중에서도 가격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닙니다. 저희 수용하기가 어렵……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李達坤 위원** 가격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똑같아요. 의무화라는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다 이거지요.

○**李達坤 위원** 자, 그러면 보십시오. 가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 놓은 건 없지만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어요.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감세해 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李達坤 위원** 자동차세까지도 손을 대 준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일시적으로 하지요.

○**李達坤 위원** 산업 분야도 그렇게 되어 있다, 2·3차 산업 분야에도. 그래서 1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우를 반값 하고 지원을 해 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뭐 일시적으로, 예.

○**李達坤 위원**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게 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관행에 근거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 예산 일부 있고, 왜냐하면 자조금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고……

○**李達坤 위원** 자조금이 법에 반영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법에 있지요.

○**李達坤 위원** 그런 식의 제2차적인 보장을 해 줌으로써 지금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그 방식

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격리 같은 것 그게 바로 그런 예지요. 90만t을 작년에 격리했잖아요.

○**李達坤 위원** 격리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시는 바도 그런 것 아니에요. 위성곤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했지요, 안호영 위원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늘상 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동이 생겼을 때 보장을 해 달라 하는 거니까 대변동이 생겼을 때 보장해야 할 새로운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예를 들어 최근 격리의 요건에 해당된, 10년 동안에 여덟 번을 격리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아홉 번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요건만 되면 격리를 했어요.

○**李達坤 위원** 그래서 나는 야당 위원들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1차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안 해 줬을 때 우리 양심이 상당히 아픈 결과를 초래합니다. 멸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치도 국민들의 생활음식 필수품입니다. 주식의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의 결의라든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고, 정 장관님이 이 정부에서 당분간 결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방법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제 호소입니다.

○**김승남 위원** 정부가 대안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李達坤 위원** 국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요 국회 선진화법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이것은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당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법안 아니에요. 이것 진짜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숙의해야 될 건데 숙의 과정이 성립되지 않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만이라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도 중요하지요, 상임위원장님?

우리 결의를 해 가지고, 변동이 생길 때는 새로운 방법을 내놓는다 하고 결의를 하나 하고 행정부에서 받아들이면 이 법은 본회의 통과만은 막음으로써 우리가 국회를 사류에서 이류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삼류 정도로 올릴 수 있지 않겠

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호영 위원** 정부에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대안을 좀 내놓도록 하면……

○**李達坤 위원** 그렇지, 대화를 지금부터 하자 이거지.

○**김승남 위원** 정부가 대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李達坤 위원** 오케이, 대화를 하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발의부터 그리고 표결 절차 거치면서도 항상 얘기했던 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면 가장 좋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이 법을 발의했고 본회의까지 보냈으니 본회의에서 표결 전까지는 여당에서 제안을 또 해 주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협의해서 합의하면 그것처럼 좋은 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함께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에서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의무화만 빼 주신다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협의는 결과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의무화가 왜 중요한지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의무화를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말씀하세요.

○**李達坤 위원** 결론을 내놓고 하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것은 정말로 안호영 위원님이나 이원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결과도 나올 것 같아 보이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국회입법조사처라든지 한번 연구를 하게 하고 또 그동안에도 의무화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1차 산업의 공무원을 접촉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세상에 반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벤처 하는 사람도 정부에 들어가 있는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산하기관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농림부만 그런 것 아니예요.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산하기관까지 전부 정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일을 다 하니깐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차제에 약간 시간을 걸고, 사실 의무화하더라도 몇 달 있어야 되잖아요, 올 추곡까지 하려면. 몇 달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고 안 되면 우리 손 들게요, 그래도 안 된다면.

○**위원장 소병훈**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병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17만 9864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거든요, 비추정 가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가중치.

○**위성곤 위원** 이것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산정방식이 변경되어서 18만 5000원 정도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18만 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넘는데……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역대 쌀가격 목표 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발표한 가격인데 언제쯤일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게 목표가격 저기잖아요, 변동직불제 작동이 될 때.

○**위성곤 위원** 2018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농림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2022년 목표가격 20만 원이 상회한 것으로 했고요.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는 관련해서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이라고 요청을 드렸고 저희 정부가 그 당시 당정 협의를 거쳐서 19만 7000원으

로 향후 목표가격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만 5000원은 그 당시 설정한 목표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낮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게 적절한 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젠 좀 비교 대상이 다른데요. 과거의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5년마다 변동직불제를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가격 그것 밑으로 떨어지면 그 떨어진 가격 차액의 85%를 농업인들께 지급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운영이 되었던 거고……

○**위성곤 위원** 전제하에서 운영이 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은 제도가 바뀐 거지요.

○**위성곤 위원** 예, 제도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예상 가격으로 보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22년 정도 되어지면 21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 22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목표가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당시 정부 보도자료입니다, 당정 협의가 19만 6000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에……

○**위성곤 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가격이, 도대체 적절한 쌀값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 장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워낙에 편차가 커서, 앞서 관련되어진 질의가 있었을 때 18만 5000원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고 적절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다, 충분히 더 돼야 된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시장에서 균형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가격 같으면 훨씬 높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위성곤 위원** 장관께서는 그러면 시장에서 결정되어서 훨씬 낮아도 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낮은 건 정부가……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들께서 고생하시면서 벼농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막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목표가격을 2018년 정부가 추계했던 가격이

22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18만 5000원이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정부가 예상한 평균가 19만 60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의무조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알겠는데, 다만 이젠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요. 그 목표가격이 농업인한테 그대로 소득으로 보전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85%가 보전이 되도록 돼 있잖아요, 가격 떨어진 것의 85%가. 그러니까 그 목표가격이 기준가격일 뿐이지 그게 농가에 지급되는 가격은 아니다. 또 하나 변수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목표가격에서 85%가 떨어지게 되면,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변동직불금을 작동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시장가격은 목표가격에서 85% 이상을 유지시켜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의 과제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최대한 높이 올려 놓아야 농가 소득이 보전이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대한이 아니라 최저를 농가들에게 보장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몇 %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난해 한 5% 정도 안 됐나요?

○**위성곤 위원** 그 전에는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전에는 좀 낮았지요.

○**위성곤 위원** 2018년의 물가상승률은 약 2% 내외였을 겁니다. 그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쌀값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16조에 보면 재배면적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초과생산량에 대한 매입의무를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지난해에 우리 수매를 얼마 했습니까, 비축을? 45만t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45만t.

○**위성곤 위원** 45만t이면 어느 정도가 과잉되어진 겁니까? 과잉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난해 당초 9월 25일 날 우리가 45만t을 결정할 때는 그 당시 진흥청에서 추계한 길로는 약 25만t 정도가 과잉될 거다 이렇게 봤지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한 거지요.

○**위성곤 위원** 그 추가도 야당의 강력한 요구, 야당의 양곡관리법 추진 등에 떠밀려서 했는데 실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부 다 매입도 안 하고 계신 상태이고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는 매입하기 위해서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지금 계속, 원래 12월 말에 끝나도록 돼 있는 것을 1월까지 연장했다가 지금 2월 말까지 연장했어요.

○**위성곤 위원** 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곡관리법은 재배면적을 통제함으로써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그 쌀값 안정을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립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을 뭘로 통제할 거냐? 논 타작물 등 논에 다른 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하자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난해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를 하지 않았지요. 결국은 그래서 쌀이 남아돌게 되었고 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관련되어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보아져요.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저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해 놔더니 실제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재배면적 관리를 제대로 안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쌀 의무 매입법이 아니라 논 타작물 의무 재배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장관께 말씀드리고.

장관께서 논 타작물 재배든 추진하고 계시는 전략작물직불제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다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양곡관리법으로 재배면적을 제어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다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게는 할 수 있고요. 그건 정부가 계속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장관으로 온 이후에는 가루쌀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대폭 늘릴 거고요.

특히 지난해 예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략작물직불제 쪽으로 힘을 많이 써 주시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앞선 질의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앞선 질의에 답변 과정 중에서 장관님께서 ‘많은 농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정희용 위원** 어떤 농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반대의 요지는 어떤 사항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농민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전농 계열을 제외하고 38개 단체에서, 한농연을 포함해서 쌀전업농, 지도자회, 4-H회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부 얘기를 듣고 농촌경제연구원 얘기를 듣고 대학 교수 얘기를 들어 보니 이렇게 빨리 추진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쌀 가격이 떨어져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명서도 냈고 기자회견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양곡관리법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정희용 위원** 그분들에게도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저희가 권역별로 돌기도 하고 지방방송에 출연도 하고 중앙에서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해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저희 농림부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앞서 또 질의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식량안보를 위해서 필수로 유지해야 되는 농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동안 몇 년 전에 국토연구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150만~160만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진흥구역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진흥지역 밖이 되겠는데 논밭 합쳐서.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154만 정도가 됐고, 해마다 평균 1만 5000ha 내외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3년 안에 150만 아래로 떨어지는 건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농지라는 게 사실은 가격도 싸고 기반 정비가 돼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입장에서는 소위 쌀 가격이 떨어진 것을 빌미로 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라는 압력을, 사실은 엄청나게 제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지는 한번 훼손하면, 우리가 1ha 농지를 지금까지 가꾸기 위해서 최소 5000만 원 이상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겁니다, 그게. 몇십조가 투입돼서 그렇게 만들어 놔는데……

○**정희용 위원** 말씀을 잘 알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걸 한번 깨 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정희용 위원** 장관님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ha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증가, 효율성이 증가하니까 증가할 텐데 과거에 산정한 그 농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산량이 증가하면 농지가 줄더라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유지해야 되는 생산량을 획득할 수 있다면 그 면적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특히 지금처럼 과잉 생산되는 논 면적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앞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 농업과 관련된 자재창고라든지 그런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허용해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게 한 번 추정했던 게 아니고 거의 5년 간격으로 전문기관들이 계속 내고 있고요, 거기에는 그동안 생산성이 올라간 게 감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54만ha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식량자급률은 44%밖에 안 되고 가축이 먹는 사료용까지 포함하면 80%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제시한 건 뭐냐 하면 식량작물, 쌀·콩·밀·옥수수 이 식량작물은 최소한 우리가 50% 이상, 55%까지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면적만 지금 단수를 가지고 보면 155만ha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희용 위원** 말씀 잘 알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걸 생산성으로 커버를 하면서,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별로는 불가피한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건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관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변하는 상황에 맞게 검토를 자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장관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제로 하면서 ‘감축량 목표가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감축한다. 그런데 농축수산 분야에서 27.1% 감축하겠다’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 정부가 정한 걸 존중해서 그 부분 그렇게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농업 분야는 그대로……

○**정희용 위원** 농업 분야는 그대로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일단은 이행을 하는데 어쨌든 미세하게 손을 볼 만한 건 더 봐야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기본방향은 농업 분야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소비자 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는 어쨌든 탄소배출을 당초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최대한 이행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

○**정희용 위원** 그러면 이제 2023년이기 때문에 그 점검을 지금쯤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게 국제적 약속인데, 물론 처음에 무리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약속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히신 만큼 잘 폴로업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점검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50년까지 농업 분야는 37%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여튼 그것도……

○**정희용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설원예작물 하시는 분들이 기름, 등유를 쓰시는 분들은 예비비 통해서 151억 해서 지원을 받는데 과거에 전기로 전환을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저는 친환경하고도, 탄소중립하고도 관여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정부에서 전기로 전환을 하라고 유도해서 따라갔는데 등유로 있는 분들한테는 일부 지원이 되는데 전기 사용하는 시설원에 농가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들으니 사정이 좀 딱하더라고요.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화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반갑습니다.

정황근 장관님, 조재호 청장님, 남성현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2023년도 우리 농민들이 행복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저희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농지 활용과 관련된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관님 말씀이 150만ha 이상, 155만ha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추정된 내용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민의 입장에서,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농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편익, 농지를 유지했을 때 편익에 대비가 되고 꾸준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농지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의 기회 편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한편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식량안보라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직불제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농지를 유지하고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편익이 있는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편익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정부에서도. 그 내용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농정을 유지할 때 그 내용에 상응하는 정도의 기대편익이 담보되도록 해야만 지속가능한 식량안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진흥구역에 따른 실제 농민들의 현재 목소리

들, 소득을 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쌀을 통해서 보전하든 아니면 생산 조정된 타작물 재배 지원이나 또 전락작물직불제를 통해서 지원하거나, 이유야 여하튼 소득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전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쌀값이 19만 원 선, 20만 원 선이 적정하나 여부도 있지만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우리가 시장격리로 전환하기 이전에 운영했던 쌀 변동직불제, 쌀 변동직불제하고 지금 시장격리 의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장관님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강한 제도라고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질문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윤준병 위원** 소득 담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가 소득 담보 입장에서 변동직불제가 훨씬 높다고 봐야지요.

○**윤준병 위원** 농민들의 소득을 담보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쌀 변동직불제 내용이 더 직접적이고 강하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버리고 지금 시장격리를, 그동안에 더 그것을 담보한다는 미명하에 재량사항으로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이렇게 됐지요. 변동직불제를 운영하다가 2019년에 공익직불로 전환한 거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지요. 첫째는 변동직불제는 쌀을 중심으로 직불제를 지급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농업인들이 쌀을 중심으로 재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쌀이 부족한 시대에는 맞았는데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 되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도움 안 된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쌀 중심으로 주던 것, 그리고 대농이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공익직불제라고 그래서 논밭 구분 없이 농가 단위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윤준병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일단

실제 가격 보전이라는 가격 지지 입장에서 보면 쌀 변동직불제가 시장격리 의무제보다 훨씬 강해요, 원래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쌀 변동직불제 더 강한 것을 포기하고 좀 유한 걸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예전에 더 강한 것 시행될 때는 아무 얘기 았다가 쌀 시장격리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니 위헌적이지 뭐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훨씬 더 강한 정책이 있었다는 점 환기시켜 드리고요.

장관님께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시장격리 의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조건이 있지요?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런데 왜 무조건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그 조건에 부합했을 때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건적 제도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3%·5%로……

○**윤준병 위원** 그런데 왜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제도라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3%·5%를 감안하고……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이 무조건적인 제도라고 모두 말한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를 았았어요.

○**윤준병 위원** 아니, 녹취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석상에 제가 있었지요.

○**윤준병 위원** 아니, 회의석상에……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무제한적인 제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 초과하는 건 무제한이지요.

○**윤준병 위원** 초과생산량만 하는 거잖아요. 왜 무제한이라고 그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초과 생산된 물량은 무제한이 맞는 것이지요.

○**윤준병 위원** 그래서 대통령의 ‘무조건, 무제한’

이 발언은 잘못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했어요, 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 회의석상에 제가 있었어요.

○윤준병 위원 있었는데 그 발언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발언 안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3%·5%라는 건 전제가 돼 있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아니, 거기 전제하면서 얘기했어요, 모두발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윤준병 위원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전제 안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3%·5%라는 것은……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제한, 무조건’은 잘못된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발언 그렇게 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3%·5% 초과되는 건 무제한이 맞지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윤준병 위원 3%·5% 하면 거기다 생산량이 3% 이상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의무 매입하는 것은 전량을 하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을 한번 들어 보세요. 장관도 잘못 아시는 것 같아.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초과생산량은 전부 사는 거잖아요.

○윤준병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라니까.

3% 이상 되면 그다음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매입한다고 조건이 돼 있어요, 대안에. 그러니까 장관도 자꾸 3% 이상 되면 무조건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수요량을 3%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면 초과되는 양 전량을 사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법에 의무화해 놓으면 무조건 사야지 그걸 재량으로 삼니까?

○윤준병 위원 법의 조건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안 보시고 장관이 자꾸 우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대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여 드려야 되겠네. 아직 장관부터가 잘 모르시는구먼.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왜 호도를 합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윤준병 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읽어 드릴게요.

‘미국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국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3% 되면 무조건 초과생산량을 매입한다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십니까?

장관도 똑바로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말씀하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균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인사말씀 3페이지에 보면 여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에 대해 가지고, 가루쌀과 밀·콩·조사의 생산에 대해 가지고 전략작물직불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헥타르당 50만원~4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나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품목별로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품목별로 있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만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만큼 지급을 했을 때 쌀 생산을 위해서 벼를 심는 것하고 나중에 추수기에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습니까? 쌀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더 낮습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밀 같은 경우 겨울에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 단작의 경우에 50만원, 가루쌀까지 연계를 하면 25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료를 논에 여름철에 심게 되면 430만 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 대체적인 설계는 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높게, 조금 높게 형성……

○**최춘식 위원** 그것을 좀 여쭙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쌀을,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지 또는 수고로움이 좀 더 적어야지 그것을 택하게 되지 벼농사 짓는 것이 편하고 소득도 높다면 그것은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양곡관리법 때문에 너무 많은 답변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축진법이라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여기에서 보면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사업에 대해 가지고 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원칙을 읽어 드리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의 경제력이 농촌을 견인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런 성격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체험이나 농촌휴양마을사업자에게는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보게 되

면 이 체험마을과 휴양마을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위에. 그것은 바로 단체나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 여쭙보는 것은 여기의 지원사업 대상에 위에 있는 상위 조직도 좀 포함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거기 대부분 운영위원회라고 조성이 되거든요. 만드는데 거기에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닙니다.

○**최춘식 위원** 체험마을에는 됩니다. 사업자한테는 되는데 그 운영주체들에게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운영주체라고 말씀하시면……

○**최춘식 위원** 규합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어촌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거기 사무국이라고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최춘식 위원** 관리하는 또 다른 위원회 내지는 단체가 규합이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거기 운영위원회 사무국에는 인건비 같은 게 조금 나가는데 아마 운영위원회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위에 또 다른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니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나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보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토지를 포함한 그런 국공유 재산을 필요로 하는 데가 바로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최춘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전자와 후자 2개를 다 법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한 것에서 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선 그 현 상황을 정확히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한 후에 한번 판단을 해 보시지요.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격리 쌀, 우리가 곡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를 한번 보니까 포천시하고 연천군은 이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곡종에 대해서 원활히 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농협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농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큰 선정 없이 그냥 지나간 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면 가장 원활하게, 다수확 품종을 퇴출하는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도록 또는 농가의 어떤 원활성을 본다면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도 한번 규칙으로 정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 투명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우리가 통상 시군별로 2개 품종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는 한두 개 더 늘릴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춘식 위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드리는데 1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하는 건 조금 경직적일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수지의 수상태양광에 대해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농어촌공사가 전국에 한 3350개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 여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개인 말고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의 수상태양광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숫자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처음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정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 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것 개발행위 할 때 주민 동의 받으라는 규정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춘식 위원**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관계규정상에 주민 동의 받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이 5 대 5로 반분돼 가지고 또 찬성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심의 향배가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 동의 안 받고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주민 동의 받아 오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하여튼 검토해서……

○**최춘식 위원** 이와 같은 게 지금 전국에 거의, 인허가 사항에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찬성과 반대 이것이 갈라지는데 이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

변 지역에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수익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것 농어촌 공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마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춘식 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아마 공사 내부규정일 것으로 봅니다.

○**최춘식 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주민 동의 문제를 가지고 지역적인 어떤 의견에 반분 형태를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께서 찬성하지 않는 데 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뉘니까 위원님 지적으로 그거 하시는 건데……

○**최춘식 위원** 그것은 꼭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공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저는 양곡관리법을 쌀 폭락 방지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쌀 생산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 소득, 농가 소득이 대단히 중요한데 1200평 한 필지당 한 200만 원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산비가 올라가고 쌀값이 내려가면 소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ha까지 정도를 중농이라고 분류한다면 93%잖아요, 물론 다 쌀농사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 봤자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는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3%·-5% 그런 기제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지방 소멸되는 건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가는 건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그걸 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농식품 부에서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감축목표를 3만 7000ha 정도로 감축하겠다, 4만ha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직불로 1만 6000,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한 1만 그다음에 농지은행 2000 또 기타 8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루쌀을 26년 4만 2000ha까지 해서 20만t 생산하겠다고 해서 가루쌀을 통한 벼 재배면적을 좀 감축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든지 4만ha, 20만t 기준 4만ha면 논의 타작물을 쌀보다 조금 이익되게 설계해서 가면 얼마든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루쌀 부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재배 적정성 문제, 병해충 문제라든가 생산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빨리 필요하다, 이 종자에 대해서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시장 문제, 장관님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속도가 너무 빨리 가면 오히려 또 시장과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쌀 생산 조정하는데 쌀 재배면적을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조정을 해야지 품종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다수확 품종을 죽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논에다가 벼를 재배하는데 다수확 품종을 죽여 가겠다는 것은 사실 이게 강제적인 방식입니다. 강제·반강제적인 방식인데, 일단 농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준비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배기술도 익혀야 되고 또 이 품종에 대한 확신도 서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민들은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 하면 소득이 줄어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동진이 다수확 품종인데 신동진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한 220만 원 버는데 참동진 180만 원 벌면 누가 이리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이 유지되는 선에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쌀 생산 조정을 해 가는 과정이 제가 볼 때 신동진이라든가 다수확 품종을 24년까지 다 보급 중단해 버리겠다? 이걸 강제·반강제입니다. 농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저는 쌀 생산 조정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속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저항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한 56%가 신동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을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품종을 심어서 그만큼의 미질과 전국적인 미질 브랜드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엇박자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쌀 생산 조정이 면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다수확 품종으로 조정하는 것은 농민들의 저항과 준비 상태 또 소득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게 잘못하면 엇박자로 간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런데……

○이원택 위원 그래서 면적을 조정하는 것…… 저는 사실 논 타작물 직불금, 아니 전락작물직불금도 좋습니다. 그 예산을 늘려서 면적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합당하다, 다수확 품종을 조정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는 가혹한, 어떤 저항이 따를 거다. 이것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글썄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다수확과 품질의 문제도 있고 쌀 과잉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동진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병충해 내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사실은 도열병 이런 피해가 굉장히 큰 품종이거든요.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농민들의 준비 상태에 맞게 전환이 돼야지 24년에 중단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래서 참동진이라든가 또 새 무슨 품종이 있지요.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제가 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원택 위원 이것은 농가의 소득이 유지되는 선상에서 고민해야 되고 또 농민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이게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예고를 하고 후속 품종에 대한 보급종까지 전부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하여튼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원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농가 소득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했을 때 소득이 보전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저는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 면적을 조정해야지 품종을 조정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결국은 사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원택 위원 다음 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통계청 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가 있는데 농가판매지수가…… 농가판매지수 아시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원택 위원 2.3% 떨어진 거지요. 사실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농민이 생산한 판매가격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우라든가 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폭락된 것이 좀 반영되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 올라갔습니다.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자재를 구입하고 이런 건 다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3.4% 하락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농가구입가격지수 같은 경우는 2005년 통계 이후에 최대치 상승입니다. 사실 그만큼 농가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 결과 농가 소득이 22년에 한 180만

원 떨어진 것으로 나오지요. 장관님, 농업 소득이 180만 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1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쌀값 떨어졌지요, 한우값 떨어져 가지요, 인삼…… 별 폐사해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22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원택 위원** 아니, 22년 통계 나왔습니다.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농가 경영을 보면 등웃값 36.3% 올라갔고 면세유 39% 올라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요금은 96.9%, 두 배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단속은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 거지요.

또 사실 농촌은 도시가스 중심이 아니잖아요. 도시가스 아무리 내려 봤자 농촌은 혜택이 적습니다.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번에 에너지바우처에는 등유 이런 것 넣기로 했지요.

○**이원택 위원** 총체적으로 22년 농업 소득이 1105만 원인데 한 180만 원 정도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비가 총수입 대비 70.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요. 수익이, 실질소득이 확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지난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됐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직 정확한 저기는 안 나왔는데……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사실 적극적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신동진 같은 경우는 다수확 품종, 조금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벌자는 건데 그런 것을 참동진이나 다른 품종으로 해서 소득이 떨어진다면 농민들 이해 못 하지요. 그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이런 과잉 구조에서 다수확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견……

○**이원택 위원** 면적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이원택 위원** 면적 조정, 면적을 조정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이것은 아마 저항에 상당히 시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조정하는 쪽에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전략 직불을 좀 더 키운다든가 해서 그런 방식을 택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야지요, 다양한 방식을.

○**이원택 위원** 그것이 농민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농민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소병훈**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과 청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고 또 정희용 위원님하고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난방비·전기요금 급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은 그야말로 삼중고로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자재비·인건비 급등하고 있고 난방비·전기요금까지 폭등해서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농사를 포기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려 옵니다.

유가 폭등에 따라서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등유가 리터당 1월 말 현재 1497원이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39% 인상됐고, 2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올해 한 차례 등 네 차례 인상돼서 지금 62.8%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하면 그만큼 농산물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농산물 가격은 올해 1월에 보니까 전월 대비 2.7%, 전년 대비 1.1% 상승에 그쳤더라고요. 그것도 수산물이 올라서 조금 오른 것이지 농산물은 오히려 전월 대비 0.2% 하락을 했어요. 축산물도 0.6% 상승에 그쳤는데 이게 참…… 재료비는 올라가는데 완성품 값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농촌의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실망스러운 것이 장관께서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유독 시설원에 농가에 151억 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하겠다는 것만 들어 있지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유가 상승 이런 것들에 따른, 농촌의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아무 보고가 없어서 좀 답답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나요?

○**주철현 위원** 예. 어떻게 지금 강구를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농업인들이 쓰는 기본 생산을 위한 자재 대표적인 게 비료고요. 비료는 지난해에도 올라간 것의 80%를 정부·지자체·농협이 보조를 해 드렸고 금년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등유도 물론 흡족하지는 않지만 예비비로 151억이 지금 확보가 돼서 지원 농가를 조사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최선을 다해. 그다음에 부채 상환 같은 것도 어렵기 때문에……

○**주철현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약 1조 원을 1년간 유예하겠다는 거고 금리도 낮은 것으로 하겠다는 거고.

○**주철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농촌의 가장 현안은 이것이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른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만 보고 이걸 빠뜨려서 뭔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난방비·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추가적인 농가 부담이 시설원에 농가만 997억 원이다, 육계 농가가 262억 원이다, 전체 농사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분만 2343억 원이라고 지금 통계를,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 이걸 윤 대통령께서는 반대하셨던데 기재부 설득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좀 하시겠습니까? 어찌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전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전기는 지금 요금 체계 자체가 그동안 인상돼야 될 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 심지어 주택용까지 전부 올라갔지요. 농업용은 최소화했지요, 정부 내에서 협의해서.

○**주철현 위원** 장관님, 제가 전기요금 물어볼 텐데요. 여하튼 간에 농촌이 처한 이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최우선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제 2월 달인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제가 담당 장관은 아닙니다 마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철현 위원** 추경 외에는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장관, 이렇게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한전이 전남 구례 지역 농사용 전기 집중 점검해서 거액의 위약금을 물려 갖고 난리가 난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게 한전에서 농사용 전기 가격을 절반 이하로 지금 낮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농사용은 지금 65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 지금 130원 넘어가는데. 65원인데, 그렇게 하면서 약관에 대해서 농업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농작물 쪽에만 쓰는 거다, 농사 쪽에만 쓰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철현 위원** 장관님,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번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하시는 분이……

○**주철현 위원** 장관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잡는 생선이나 어패류뿐만 아니라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저온보관하고 건조하고 제빙·냉동하는 데 다 농사용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온보관만 가능해요, 건조 보관은 불가능하고. 농산물은 건조 보관만 농사용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장관님, 그런데 농작물하고 농산물 구분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수산물은.....

○**주철현 위원** 아니, 장관님, 수산물은 내버려 두시고요.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법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주철현 위원** 농작물, 농산물 이게 법상 용어도 아닐뿐더러 법상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서 정확한 농산물 개념을 법적으로 해서 수산물처럼 고유의 산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유통이라든지 제조·가공품도 다 농산물 개념에 포함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수산물은 어떻게 보면 법이 미비해서, 그냥 수산물이 뭐냐 해서 처음에는 위약금을 물렸다가 소송까지 가 가지고..... 현행법에 수산물의 규정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그것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요. 수산물 개념에 정확히 수산가공품, 유통물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 거고요. 농업은, 농림 파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수산물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농업은 그런 법이 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업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지요.

○**주철현 위원** 세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 개념이 있습니까, 법상? 농업의 반대 개념은 어업이에요. 수산물 개념이 있으면 농산물 개념도 있어야 되는데 농산물 개념이 법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지금 약관에 명확히 되어 있어요.

○**주철현 위원** 아니, 약관 얘기가 아니고요. 법을 이야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법을 이야기하게 되면 법에 농산물 개념이 없어요. 이게 가장 상위 개념이 되어야 되고 수산물처럼 수산물가공업·수산물유통업 또 전후방지원업이 다 포함되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직도 갖추고 지원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농업은 가장 기본인 농산물도 개념이 지금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어요. 너무 협소하게 농업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 개념을 법으로 정의를 해서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두고 나머지를 세분화시켜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배 상태에서 나온 산물이 농산물이지요.

○**주철현 위원**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산물은 잡는 어업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가공품이 다 수산물 개념에 포함돼요. 유통업도 포함됩니다. 농산물은 이것 안 되고 있잖아요. 왜? 농산물 개념이 법정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통감하셔야지 그걸 이상하게 핑계를 대시면 됩니까?

빨리 검토를 해서 농산물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법 개념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을 하십시오, 장관님. 부탁 좀 드립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윤준병 위원** 대통령령에서 정하면 되는 거지요.

○**주철현 위원** 아니, 법으로 바뀌야 돼요. 법으로 바뀌서 포괄을 해야 돼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주철현 위원님이 부탁하셨는데 장관님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다시 한번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장관님께?

○위원장 소병훈 예, 먼저 질의 시간 외에……

○윤미향 위원 제가 늦게 질의를 하면서 즉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하고 장관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제가 너무 속에서 갑갑증이,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각자의 제안들 또 살아 온 경험들 그리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들 이것을 받아서 하잖아요. 장관님은 또 그 안에서 처음부터 쭉 오래도록 일했던 관료사회의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전문성도 완벽하다라고 본인도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답변 속에, 만약에 장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상황이면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다 아우성을 치는 것이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질의도 하고. 그래서 장관님께 뭔가 막 추궁을 하거나 질책이나 그걸 통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이 토론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다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막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가 농협에 대한 관리 감독 주무부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농협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자면 3월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혼탁 선거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뉴스에서 선거 때마다 본 것 같은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농민은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농협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 국민감정에 반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서 시중은행도 잘 안 받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되기까지 과연 농협 관리 감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과연 농민과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협을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그 의지가 지금 현재 농림부 안에 있을까 하는 의문도 솔직하게 들기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수농협 사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농협이 의원실에 제출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상임이사 허위 출장비 부당 수령 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이 더 심각한데요.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역농협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즉시 실시해야 할 현장 사실조사를 누락 처리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진행한 농협중앙회도 사실조사 적절성 여부를 허술하게 감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그 사실조사를 해야 하고 또 위반 시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 매우 중대한 그런 부분인 것 아시지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응현황 자료를 보시면 농협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진행된 지 수일이 지나서야 관계자를 면담했어요. 그리고 또 중앙회 감사는 사건 발생 시점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빼놓고 진행을 해서 이게 하나 마나 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데도 과연 농협중앙회에 일선 조합 지도감독 업무를 맡겨도 된다고 보시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농협법에 따른 중앙회와 일선 조합의 지도감독 주체가 농림부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농업협동조합법 감독규정을 보면 일선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농림부가 또 중앙회 회원은 농협중앙회가 하도록 감독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해야 할 일을 위탁 규정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부분을 농협중앙회에 재량을 주고 있고 농림부는 관리 감독 의무를 태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런 조사, 제

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번 장수농협처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합, 그런 조합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 감독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조금 신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게 그냥 노동부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농림부가 지도감독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이자자금 지원 운용 실태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이자자금이 중앙회장 쌈짓돈으로 불리고 있는 것, 혹시 그런 비판 받고 있는 것 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하여튼 그 비판이 좀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사실상 회원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략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의원실에서 무이자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매년 수조 원이더라고요.

이 PPT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무이자자금 지급 규모가 최근 3년간 총 36조 7000억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간 지급 추이를 보면 자금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 주목할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원조합 특성별 지급 현황이네요. 과거에 지적됐던 중앙회장 투표권이 있는 조합장이 대의원으로 있는 조합에 대해서 자금이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문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당 지원 금액을 보면 여전히 일반 조합의 지원금 수준은 조합장이 대의원 또 이사 등 보직을 맡은 보직 조합보다 낮고 또 평균 지원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표를 보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자금이 농협 자금지원심의위에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금 지원의 적절성과 지원금 책정 등 그 결정 구조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실에서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

는지 의문이고,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금 지원 조건 미이행으로 위약금을 낸 지역 농·축협이 113곳 또 위약금이 5억 1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장관님, 이렇게 봤을 때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감감이 심사로 중앙회가 매년 수조 원의 무이자자금을 주무르고 있는 것 이것 농협에 대한 농민 및 조합원의 신뢰가 회복되겠는지, 자금운용 관리 실태 또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농협 개혁 필요성은 계속 지적되어 왔잖아요.

위원장님, 먼저 1분 더 요청을 미리 드려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추진한 2011년 사업구조 개편이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통한 농민 권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평가를 다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합장 선거와 연임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지금 이때가 바로 농협 개혁의 적기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말씀을 듣고 싶고요.

제가 강조한 농림부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 그리고 자금운용 문제 자세히 검토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이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민과 조합원의 권익이 실현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농협 개혁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선 무이자자금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요구도 하고 노력을 했고 이번에 농협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지금 상임위에 와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무이자자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장수 문제는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있으면 안 되는데, 농림부 쪽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든 아니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든 이것은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또 제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근로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부에서 주관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농협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미향 위원 결국은 농림부의 책임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노동부에만 맡겨 두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도 하야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적극적으로 강화 대책 세워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농사용 전기 폭등해서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농사용 전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문제가 많이 있지요.

○김승남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승남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어차피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농업용 쪽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전기를 포함해서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민 이외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이번에도 많이 포함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한전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아시겠습니까마는 1년 전과 비교해서, 2022년 1월 달하고 올해 1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농사용(갑) 전기는 97% 인상이 됐고요, 농사용(을)은 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갑은 농업인하고 직접 관련…… 그건 농어촌공사에 관한 거고.

○김승남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인상률을 보면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을 보시면 됩니다, 을.

○김승남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한전에서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왜 정액 조정을 통해서 인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률 조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정액 조정하기로 전 정부가 지난, 언제지요…… 그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방향입니다, 정액으로 올리자. 그런데 이번에……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작년에 올리는 것 보고……

○김승남 위원 정률제로 하자고 농림부에서 주장을 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계속 요구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

○김승남 위원 그 요구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닥쳐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게 일부만 약간 반영하고 3년에 걸쳐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김승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소농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률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그것은 산업부, 한전하고 계속……

○김승남 위원 이것 제도개선이 시급한 문제고요.

장관님, 소값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과잉에다가 플러스 경기침체로 소비가 확 줄고 있는 것, 두 가지지요.

○**김승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 7월 8일 비상경제회의, 대통령이 주관한 그 회의에 장관님 가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비상경제회의는 거의 100% 참석하니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지요. 저는요 이때 아주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저는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언급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가파른 축산물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운용한다’ 이런 방침을 결정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가셨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있었으니까……

○**김승남 위원** 저는요 그때 그 당시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소값이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서민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 소비가 둔화되고 다 가만히 있어도 소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당 관세를 10만t이나 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해서 호주산 할수가 있어요? 이게 영향을 상당히 미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때는 수입산 쇠고기가 가격이 40%·50%, 부위에 따라서는 70%·80%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고……

○**김승남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한우농가를 생각해야지 왜 수입산을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지금 시장이 한우고고는……

○**김승남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김승남 위원** 그렇게 해서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각각 10.6%, 16%의 관세율을 적용 중인데 이것을 0%로 낮췄어요, 한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것도 쇠고기값 하락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안 갔어요. 1%, 4% 정도밖에 안 났어요. 결국은 수입업자, 유통업자 이 사람들만 지금 배불린 것 아닙니까, 농림부가,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이 문제가 발생했던 9월 22일 방미 전에 7월 8일 날 경제회의 해 가지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 주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승남 위원** 누가 보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저하고 부총리가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저하고 부총리.

○**김승남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누가 보더라도 쓸데없는 정책을 하고 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쇠고기값이 지금 더 폭락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김승남 위원** 이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그 당시에 한우협회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했고요.

○**김승남 위원** 누구하고 대화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한우협회 회장단하고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시장 자체가 한우는 고급육이잖아요. 냉장 상태로 유통이 되고, 수입 쇠고기는 98%가 냉동이에요. 시장이 완전히 달라요. 정부가 그것 검토 안 하고……

○**김승남 위원** 아니, 장관님, 그 쇠고기가 시중에 팔려 가지고 가격 조사까지 했는데 지금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이거 국민들이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시장이 엄연히 다르고 그 10만t 할당관세를 했어도 그 이후에 국내 쇠고기값이 계속 올라갔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게 떨어졌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수입 쇠고기……

○**김승남 위원** 쇠고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면 저희 자료 드릴게요.

○**김승남 위원**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공식 자료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김승남 위원** 부채살 4.3%…… 잠깐만요.

그다음에 미국산 소고기 냉장 척아이를—알목 십—해 가지고 1.5% 이렇게 미미하게 내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할당관세 10만t 하고 돼지고기 2만t인가 했는데 그걸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반대급부로 제가 얻어낸 게 있잖아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사료자금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걸 3년 거치 후에 2년, 5년간으로 늘렸고 1.8%도 1%로 낮췄고……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다고 생산자 잡을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균형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농민이 들으면 우리 한우농가 희생해 가지고 온통 저기 했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김승남 위원** 결론론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결국은 이걸 가지고 한우농가들과 대화했어. 대화를 했더니깐요.

○**김승남 위원** 대화를 했으면 이런 정책 결정을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한우농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김승남 위원** 지금 시골에 가 가지고 한우농가들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수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정부가 우리 한우 농민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어떻든지 간에 지난번에 10만t 할당관세 0%로 해 준 것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위원장 소병훈**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나 하라고요? 하기 싫은데요.

○**위원장 소병훈** 안 하셔도 돼요, 많이 하셨어요. 서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야 장관님께서 잘 들으시니까……

○**서삼석 위원** 장관님한테 맨날 물어보니까 진흥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감사합니다.

○**서삼석 위원** 청장님, 제가 뭘 물어볼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농진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삼석 위원** 아니요, 농업 분야 에너지비용 절감 관련된 건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농민들한테 해당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소농이나 영세농들의 에너지 절감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서삼석 위원** 10년간 13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설 관련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 것을 좀 개선하라 하는 취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주로 시설농가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해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일반 영세농이나 아니면 소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노지 밭작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랙터라든지 노지 농기계에 대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연구들도 앞으로 보강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물도 있고 또 스페인의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런 시설 관련 쪽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소농인, 영세농들도 좀 살펴 주세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시간이 남아서 장관님한테 물어 봐야겠네요.

(명함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무슨 명함 같기도 하고……

○서삼석 위원 제 명함입니다, ‘쌀! 5000만 국민 주식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 갖고 다닙니다.

여야 위원님들, 장관님까지 열띤 토론들을 하고 계시는데 양곡관리법도 좋고 논 타작물 재배도 좋고 전락작물직불제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볼 때 쌀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이 5000만 국민 주식이 맞냐?’라고 제가 여쭙봤을 때 장관님이 ‘맞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지요.

(소병훈 위원장, 김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서삼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 주식답게 정부나 국회나 국민들이 쌀을 대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소고기 가격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했는데 좋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맡겨 놓은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저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쌀이 됐든 소고기가 됐든 1차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품들은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프레임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소고기 문제도 계속 시장에다만 맡겨 놓으면, 정부가 지금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고는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농산물, 축산물—수산물—해당이 안 되니까—, 산림청장 계신데 임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에만 맡겨 놓는 것이 상책은 아니나라는 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사실상 100% 동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에서 농업 문제를 시장에 맡겨 놓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절대 안 되는 얘이지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사실은 시장에 맡겨 놓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양곡법 의무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결과적으로 당초 의도와는 달리 농업인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것으로는 오

히려 마이너스 형태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농업을 보호해야 되고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우 파동 심각하잖아요, 지금 한우 파동?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대로 놔두면 파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커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가격이 폭락해서 한우농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여기구 위원 한우농가들 폐업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지 예상은 해 봤습니까? 한우농가들 2012년도에는 절반이나 줄어들었어요, 절반. 지금 어때요? 어떻게 추계 좀 해 봤어요? 2025년까지 한 2만여 농가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당연히 이탈되는 농가가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9만 농가 가까이가 한우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한우는 우리 쌀에 이어서 아주……

○여기구 위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럼요, 정말 역사성도 있고. 더구나 지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쌀보다 더 많이 먹는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우산업 기반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럼요.

○여기구 위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우리 귀한 먹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만에서 2만여 가구가 2025년까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안 하도록 이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해야지요, 해야 되고. 지금 농민들이, 한우농가들이 많이 어려운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잘 아시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과거 구제역 때 소를 전부 내다 팔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상 상황에서 만든 건데……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이것 손을 봐야 되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작동이 현실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안 되잖아요. 실효성이 전혀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구 위원** 개편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상충되는데…… 안 맞습니다.

○**여기구 위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거 고쳐야 되지요, 장관님? 고치서 가지고 우리 한우농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여기구 위원** 전략작물직불제, 장관님이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지요.

○**여기구 위원** 그렇지요. 이거 신규 도입해서 2월 15일부터 신청·접수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요건에 대해서 일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들으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조사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구 위원** 그렇지요, 하계 조사료 문제.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이 한정돼 있고 조사료 7000ha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넣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7000ha를 다 확보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100%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러면 얼마간 확보

가 될지 그걸 보면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해 주시고.

단서 조항이 문제가 돼요, 단서 조항이. 단서 조항이 문제 되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만약에 금년에 문제가 된다, 금년에는 방법이 없다면 내년부터라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 단서 조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서 조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금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조항을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다른 것, 콩 심고 하는 데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잖아요.

○**여기구 위원** 어쨌든 이것 불합리한 제도인 것 인정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시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여기구 위원** 그다음에 계란 문제, 계란 수급 조절 문제 이것 완전히 실패했지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계란은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설 앞두고 계란 비축물량 방출하고 스페인산 계란 121만 개 들여온 것 잘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려도 돼요?

○**여기구 위원** 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AI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호주 대륙 빼 놓고는. 미국은 계란이 4배가 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제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유럽도 2배, 3배가 올랐고 가까운 일본도 6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래서 우리는 수입을 해 가지고 계란 가격이 대폭락했는데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아니, 우리가 들여온 것은 121만 개입니다. 하루에 대한민국 국민이 4500만 개를 먹어요. 120만 개는 영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구 위원 그런데 추계를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들어온 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아니, 추계가 아니고……

○여기구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인정한다니까요. 뭐냐 하면 왜 사 왔는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왜 사 왔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조류인플루엔자가 급격히 확산하게 되면……

○여기구 위원 그런데 결국은 확산 안 됐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잘해서 확산이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전문가들이 다 확산이 된다고 보고 있었어요.

○여기구 위원 자, 보세요. 전문가가 확산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루트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여기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좋아하잖아요. 늘 전문가, 전문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작년 11월 보고서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AI 확산돼도 계란 수급 문제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12월 예측도 2월까지 계란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에 비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AI가 산란계 쪽에 확산이 안 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여기구 위원 무시하고 정부는 계란 수입을 진행했고 방출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계란 가격이 다 폭락을 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계란 폭락하지 않았어요.

○여기구 위원 폭락하지 않았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여기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란 산지가격표를 보세요, 폭락이 안 됐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여기구 위원 30개 1판당 4309원이었던 것이

작년 12월 말 대비 761원, 15%나 폭락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란농가들이 아우성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쇠고기 문제처럼 금년 들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누가…… 장관님이 다 사인하시는 겁니까, 계란 풀고 그러는 것을 다? 이거 누구 협의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협의 다 하지요. 그런데 푸는 것 정도는 실무선에서 하지요.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 푼 건데 ‘이번에 잘못됐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수입하는 것은 제가 결정한 거고요.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완전히 잘못됐어요.

보세요.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계란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 좀 지적해 달라 해서 지적하는 건데 전혀 인정을 않고 계시는구먼. 무조건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우리가 계란을 121만 개를 사 온 것은, 축산물은 갑자기 수입하려면 수입이 안 돼요. 작업장도 있어요. 검역 문제 때문에 농산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최소 물량을 사 온 거고, 121만 개는 우리 국민이 하루에 소비하는 4500만 개의 0.4%밖에 안 돼요. 가격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구 위원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위원님 경제 잘 아니잖아요. 0.4% 가지고……

○여기구 위원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좀 하세요, 숫자 핑계 대지 마시고, 장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여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저인데요.

○위원장대리 김승남 신정훈 위원님 하고 위성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전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장관님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여전히 장관님의 입장이 과장되고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의회하고 정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장관님의 해석이 일방적이에요. 장관님의 논리가 굉장히 일방적이라고, 과장돼 있고.

보세요.

한번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격리 필요하다, 일정 조건 됐으니까 확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회 기자회견문에도 나오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표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 요건이 충족된 상태니까 늦추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던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래서 우리 빨리했잖아요. 90만t을 엄청 빨리했잖아요, 작년에.

○**신정훈 위원** 그래요. 이런 입장과 야당,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계속 장관이 입장을 되게 과장하고 일방적인 논리를 펴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무조건’, ‘무제한’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 양곡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요건을 갖췄을 때 매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위당을 한번 들어 보세요. 완전히 대통령 생각이 지금 왜곡돼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윤석열 대통령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업무보고 할 때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신정훈 위원** 이렇게 지금 양곡관리법을 왜곡해 가지고 거부권까지 가면 국민들의, 농민들의 가슴에는 못을 받고 대통령은 철저히 왜곡된 인식하에서 이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3%·5%는 전제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정훈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3%·

5%이면서……

○**이원택 위원** 초과생산량은 제한된 양이잖아요.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신정훈 위원** 3%·5%가 예상되고 급격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원택 위원** 초과생산량은 한정된 물량이잖아요. 무제한 물량이 아니잖아요.

○**신정훈 위원**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에요.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3%·5%가 과하면 좀 더 자기 입장을 내보세요.

이게 마치 시장을 완전히 어장내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대통령이 왜곡된 인식을 계속 품어 가지고 장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이걸 정확히 알고 계세요. 3% 초과하고 가격이 5% 떨어질 때……

○**신정훈 위원** 저 위당이 맞습니까? 국민들한테 계속 저것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무제한 수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신정훈 위원** 무조건 매입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은 것에서는 무제한이 맞는 거지요, 그 조건에 맞으면 전량이니깐.

○**이원택 위원** 초과생산량에 한정된 물량인데요.

○**신정훈 위원**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매 이게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 초과된 물량을 사게 되면 사는 물량 그것은 다 사야 되는 것 맞잖아요.

○**신정훈 위원** 분명히 지금 팩트에 대한 확인을 계속 장관은 왜곡된 자기 논리, 자기 언어로 이 양곡관리법을 왜곡해서 기어코 여야 간에, 대통령과 국회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책임은 저는 정황근 장관의 책임이라고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이걸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부 내에서 전부 공유하고 있고요.

○**신정훈 위원** 무슨 소리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전부 공유하고 있어요.

○**신정훈 위원** 국민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장관님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무조건 매입, 무제한 매입 우리 요구한 바가 없어요. 초과생산량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초과생산량……

○**신정훈 위원** 그것도 이미 현행 양곡관리법에도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임의적인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야기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두 면을 띄워 주셨잖아요. 21년의 선거 과정에 그 당시 대통령후보자 시절 말씀한 것도 띄워 주셨더구먼요. 양곡관리법 기준을 다 맞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것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처럼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내용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걸 다 확인한 사람은 저간의 앞뒤 사정을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신정훈 위원**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국민들이, 시청자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저같이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장관같이 알아들을까요?

왜곡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든지 뭔가 보완책을 제시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양곡관리법 매도하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신정훈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장관이 책임 당연히 모든 건 지는 거지요,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신정훈 위원** 피해가 농민들에게 가중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벌써 제가 청문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청문회가 아닌가요. 하여튼 의무화만 빼놓고는 전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어요. 그게 농업인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제 신념이 있어요. 다만 의무화가 전제되면 나머지 조건들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차관님, 차관님께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당시에 담당 농업정책국장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식량국장이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식량국장이셨지요. 3%·5% 룰이 어떻게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때 당시에 일부 단체에서 자동시장격리라는 보호 장치에 관한 어떤 요청 같은 게 있었고요.

○**위성곤 위원** 일부 단체가 아니고 농업계의 다 요구했던 거지요. 그걸 정부가 수용을 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대다수라고 보기도 조금은 어렵고요.

○**위성곤 위원** 쌀 직불금 제도가 공익형직불제로 변경이 되면서 농가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진 농민단체가 제안을 했고 농림부와 기재부가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사실 이 규정에 대해서.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자동시장격리라 하면,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시장격리라 하면 지금의 의무화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의무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의무화 내지는 자동시장격리 장치를 받아들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자동시장격리를 받아들이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쌀값 관리에 관한 선의는 쌀값 관리를 정부가 어찌 됐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쌀값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차이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나서 실제 시행을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이더라 이것이 농업계 전반의 판단이고 우리 위원들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2021년 사태, 22년 사태를 맞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 그것의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고.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과거의 변동직불금 예를 들면 2014년에 4226억, 2015년에 1조 5000억 이렇게 썼잖아요, 변동직불금을.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비용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선제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의미로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의무제를 주장하고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장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 분야에, 농축수산 분야에 부여받은 과제가 지금 현재까지 NDC 1800만CO₂t 제한이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많은 방향이 논물 대기로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실제 현실화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장관께서 2월 16일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방향의 정책을 해야 되고 그중에 미생물과 곤충 산업에 좀 더 핵심적으로, 특히 미생물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협 비료 만들고 있는 농우바이오, 바이오A·바이오B 이렇게 돼 있던데요, 실제 봤더니. 실제 저희 제주 지역의 감귤 농가들이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이더라,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면 실제 탄소 배출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화학물질의 비료 성분을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는 거니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농업, 친환경 인증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농가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농약 살포 기준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국가 식품안전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식품 농약 기준의 50배에서 100배예요.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다는 것이 이미 다 공기가 오염돼 있고 토양이 오염돼 있는데 그걸 모두 다 걷어 내고

최소 기준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는 친환경 농업을 늘릴 수도 없고 확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유럽처럼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바뀌야 된다.

결국은 과정 안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논을 재배하고 있다면 거기에 우렁이가 몇 마리 있는지 지렁이가 몇 마리 있는지 꽃뱀이 몇 마리 다니는지 이런 것 기준 가지고 사실은 규정을 해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의 기준은 친환경 농업을 아예 못 하게 만들고 있다, 생산비가 더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전환도 한다면 장관께서 발표한 그린바이오 산업 정책에 이것도 넣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고민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께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래 산업입니다. 그쪽으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의 파워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출 기준이 제로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제가 작년에 친환경 단체들 만나 가지고…… 중간에 재검사 같은 것도 아예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 우선 풀었거든요, 시행규칙 개정을 해서. 그것을 1단계로 했고.

지금 검출 기준이 유럽만 해도 0.1ppm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제로거든요. 그게 자연 상태에서 얼마든지 섞일 수 있는 게 0.1인가 0.01인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0.01ppm,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쪽으로 바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미생물 화학비료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게 탄소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하면.

○위원장대리 김승남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지역특화작물에 대해서는 종합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유망작목 중심으로 재편하여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의미를 한번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지금 전국에 지역특화작물이 6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겹치는 품목들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하나의 품목이 제대로 육성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1개 도에 하나 정도의 품목을 선정해서 진짜 지역특화해서 정말로 키워질 수 있는 그런 품목 하나를 집중적으로 가 보면 어떨까……

○정희용 위원 도 단위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골고루보다는 도 단위 하나 정도씩은 우선 확실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희용 위원 청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지역의 국립참여연구소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도 단위부터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기초지자체별로 특화돼 있는 작물을 잘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배해서 제품화·상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오늘 어디 신문에서 농진청 직원분이 CES 갔다 와 가지고 융복합 관련해서 기술 집약체를 보고 왔다, 칼럼 잘 읽었는데 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저는 다녀오지 않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정희용 위원 청장님이 직접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트렌드를 직접 보시고 그래야지 지금 업무보고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씀에도

‘발농사 스마트화하겠다, 첨단 기술 이용하겠다’ 평범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집중력 있게 연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표현들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우리도 농기계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저희가 시설 스마트농업은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CES에서 발표한 게 존디어(John Deere)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회사들이 주제 발표를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때 직원분들은 가셨을 테니까 가서 보고 오신 것을 ‘농진청은 이번 CES에서는 이런 걸 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서 준비하겠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도 좀……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걸 다 정리해서 직원들이 이미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의원실에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거 언론에도 좀 알리시고.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정희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림청장님, 지금 이때 되면 산불이 굉장히 걱정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울진에서도 큰 산불이 있었고. 지금 대응은 잘 하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예,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 24시간 산불 감시체제를 갖고 있고요. 지난주에 총리님께서 특별히 전국의 부지사들까지 합해서, 관계부처 장관관님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잘 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작년에 산불이 났었던 경북 울진 지역은 재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을 거지 않습니까? 울진뿐만 아니라 산불이 났던 지역이 다 더 위험하겠지요, 아무래도. 잘 살펴봐 주시고 다시 재발을 하거나 해서 주민들이 두 번 아픈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남성현 예, 특히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해서 불씨하고 여러 가지 연기 그래서 자동알람 시스템까지 갖춰 있는 감시카메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림청 시무식을 경북 안동 재선충 현장에서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정희용 위원 산림청 차장님하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드론을 이용하고 또 항원 유전자 채취해 가지고 현장에서 PCR로……

○산림청장 남성현 진단키트.

○정희용 위원 진단키트를 이용하고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또 현장에서 분쇄도 하고. 현장에서 보니까 안심은 되긴 되더라고요, 기술력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한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고도화해서 빨리 체크해서 대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 기술도 더 고도화해서 빨리 확인해야 될 것이고 진단키트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30분 걸리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기술력 향상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라오스 등’, 작년에 가봉하고 해외 탄소흡수원 확보 사업 MOU 맺는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집트에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라오스 등’이라고 표시했는데 그러면 지금 가봉하고는 MOU가 맺어져 있고 ‘라오스 등’은 라오스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고 ‘등’은 몇 개국……

○산림청장 남성현 지금 현재는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개국하고요. 가봉은 지금 현재 제가 농림부장관하고 외교부장관 만났습니다마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희용 위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탄소원 흡수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을 산림청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국들과 협상할 때도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국회에 지금 심의 중인 해외 탄소흡수원법, 레드플러스(REDD+)법 심의를 빨리해 주시면 저희가 탄력을 더 받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앞선 질의에서 해외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관세율을 제로로 하는 바람에 우리 한우 가격 폭락이 이어졌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관님이 다른 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협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그 부분을, 충분히 다른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그렇게 협상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저희가 할당관세 이거를 이번에 적용을 해야 된다. 다만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료용 용자하는 거 있지요? 사료 가격 지원해 주는 것 1.8%를 1%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2년 후에 일시불로 나가던 걸 5년까지 연장을 하고 상환하는 것으로 3년을 연장하겠다, 그런 걸 포함해서 몇 가지를 제가 같이하겠다고 그랬어요.

○정희용 위원 한우협회의 동의하에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한우협회 회장단하고 제가 식사도 하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제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정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만약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한우협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 쇠고기의 관세를 낮춰도 이게 우리 한우랑은,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대신 이걸 좀 언덕으로 해 가지고 한우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자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부총리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희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당관세 적용한 후에 9월 말까지 국내 한우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지금 한우 가격이 10월부터 떨어졌거든요.

○정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장관님, 한우 가격이 10월부터 떨어졌다고 그
랬잖아요, 방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한우 도매가
격.

○**위원장대리 김승남** 그런데 실제로 한우농가들
을 놓고 보면 7~8월 달부터 떨어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그게 저희
가 카운트한 게……

○**위원장대리 김승남** 그게 어떤 분석인지 모르
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산지 가격은 도매
가격, 도축장으로 넘어……

○**위원장대리 김승남** 아니, 그러니까 10월 달부
터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
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이미 작년 7~8월부터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할당관세를 0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
니다. 물론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했다는 치더라
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안호영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산지 쌀값 관련해서 현재 지금 쌀값이 18만 원대
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저희
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가중평균으로 통계를
냈을 때 2월 달에 들어서는 18만 원 넘은 적
이 없거든요. 2월 5일 기준으로 17만 9436원이고,
2월 15일 자 기준으로 17만 9864원이기 때문에
18만 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과 좀 다른 얘
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쌀
값, 산지 쌀값은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중
치가 아닙니다. 지금 농림부가 병행해서 발표해
주고 있는 그거거든요.

○**안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본 것
은 가중평균으로 물어봤을 때 아까 그렇게 말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가중평균으로는
지금 18만 원…… 우리 산지 수매할 때도 가격이
18만 1000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 가중평균.

○**안호영 위원** 아니,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그
통계가 말입니다, 18만 원이 안 된다고 지금 자

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18만
1000원…… 1000원 정도 떨어진 거예요.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것 여쭙보겠습니다.

정부가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
이 많이 생산하는 품종이 신동진 품종인데 24년
부터 신동진벼를 정부가 사지 않고 참동진벼를
재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참동진벼를 추천하는 것
은 왜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신동진이 오
래 재배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열병
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전엔
가는 큰 피해도 있었어요. 지금 현지에서도 대체
품종을 지원해 달라는 게 도에서도 나오고 진흥
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대체해서 나온 게 참동
진입니다.

○**안호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참동진벼는 신동진에 비해서 수확량이
좀 떨어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조금 떨어집니다.

○**안호영 위원** 품질은 좋다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말이지요 농가에
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참동진벼를 시험 재배했더니 키가 크고 또 수량
이 적어서 신동진벼보다는 생산량도 떨어지고 상
품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만약에 생
산량은 적은데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
면 농가 소득이 오히려 떨어질 거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참동진뿐만 아니
고 다른 품종도 있습니다. 강대찬이라는 품종도
있고요. 그래서 복수의 품종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진흥청 계열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품질이
굉장히 좋고 수량성도 안정되고 병해에 강하기
때문에……

○**안호영 위원** 거기는 하여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바로 1년에 적응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 지도 같은 것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저도 직접 농민한테 듣고 온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품종을 바꾸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적응 기간을 봐서 이게 안정적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유예기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농촌 현장에 혼란이 일어날 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유예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3년 이상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3년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걱정을 한다 이런 부분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여튼 그건 위원님들이 여러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예,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지금 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 예산 확보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협의하고 있고, 3월 말까지는 발표를 할 겁니다.

○**안호영 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지금 5조를 단계별로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선택직불제를 뭐를 중심으로 넣을 거냐. 예를 들어 전략작물직불제는 일단 금년부터 도입을 했고요.

○**안호영 위원** 그것을 할 때 말이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농민들께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5조 원 달성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2조 2000억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선택직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직불제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단가 상향을 통해서 직불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령농에 대한 어떤 농사를 짓다가 이탈하시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그다음에 청년농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어차피 저탄소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직불하고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 문제……

○**안호영 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히 면적이나 단가 상향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플러스 기왕이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한우 문제 관련해서 가지고 지금 이것도 결국은 한우 가격 연착륙을 위해서는 할인 판매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소비촉진 사업을 위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 관련된 예산 아마 확보가 필요할 텐데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원래 우리가 예산에 그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92억이 있는데 기재부하고 230억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아까 공익형직불금을 5조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가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단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3월까지……

○**이원택 위원** 정말 그 부분은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시면 아마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거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많이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파동, 아까 10만t 수입 문제 있었거든요. 제가 꼭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쌀 가격이 21만 원대, 그때 바로 시장격리 못 한 이유가 쌀 가격이 높으니까 좀 여유가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이원택 위원** 예,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10만t이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여유가 있지만 시장에 가는 메시지는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우 가격이 지금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잘 방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송아지생산안정제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 개편할게요.

○**이원택 위원** 또 사료 구매자금이라든가 가격안정기금이라든가 또는 아까 판촉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정 사육두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하면 저는, 힘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원택 위원** 저희가 사실 쌀값 하락하는 과정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아까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도 121만t 들어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21만 개.

○**이원택 위원** 121만 개 들어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안 되지만 일부는 아직 시장에 안 들어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폐기 처분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깨진 게 있어서 1만 개 그거는 폐기했고요, 그것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원택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약간 정부가 자꾸 물가 안정을 중시하면서 농가 소득, 농민 지원 문제가 취약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하면 저는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는요, 사실은 금년에……

○**이원택 위원** 장관님 잠깐요, 마지막에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원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별 문제 많이 보고받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끝벌…… 예.

○**이원택 위원** 끝벌 문제 이게 지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원인이 기후변화나 다른 원인이나를 가지고 전문가들도 해석이 있습니다. 기후에도 영향이 있다고 일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봉산업은 사실 아시다시피 기후위지만큼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 생존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응애감염증에 대해서 법정전염병 지정 문제라든가 또는 재해보험이라든가 기타 이런 대책을 장관님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과학적으로만 인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과학적으로 전혀 연계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진흥청장 계시지만 진흥청의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양봉 전문가들이 이거는 물론 0.1%라도 기후위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연결되는 게 없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응애 방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과학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실 우리 벌꿀이 죽어 가고 있고 폐사해 가고 있고 또 살 처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습니다. 그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원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실용적인 대책을 세울지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설명 간단히 드릴까요?

○**이원택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또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농지은행에서 갖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청년 우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 임차인이 사인 간에 서로 이렇게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그걸 농지은행이 갖고 가면 공모를 해서 인근의 청년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본인이 못 받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토지주와 자율적인 어떤 거래 관계라든가 이런 것 존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관님 이 부분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청년농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은 토지주의 자율적인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임차·임대인 간의 자율적인 관계가 존중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들한테 주는 건 저는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걸 정말 사회주의적이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매입한 농지가 2000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원택 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어떤 시장 원리라든가 어떤 시장 주체들의 자율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 문제도 충분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이것 변화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작년·올해 아마 농업 소득·농가 소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선은 등유……

○**이원택 위원** 예, 등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처방을 농식품부가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좀 중장기적인 전망이니까요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 통계 문제는 아직, 통계청에서는 5월이 돼야 발표를 할 거고요. 아마 농업 전망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란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우리 농업인들께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만 해도 76건이 나왔는데 우리 63건에 1월 10일 날, 11일 날 나오고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삼중, 사중으로 방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바람에 사실은 우리 계란 문제가 지금 수급이 안정되어 있다. 결국은 산란계 사육하는 농업인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농업인들께 계란 가격 폭락하도록 장관이 조치를 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축산물을 그렇다고 유사시에, 우리가 4500만이 매일 먹는데 만약에 AI가 확 퍼져 가지고 계란이 문제가 생긴다면 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마련하고 어디서 살 거냐 하면 한 달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루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아시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검역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스페인을 찍어 가지고 임시로 아주 초도물량 120만, 날개로 개수 그것만 한 거다. 그게 계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거의 전문가들 다,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여전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질문 때 장관님께 제가 농산물하고 농산업 개념을 혼용해 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산업 밑에 어업 가공업, 어업 유통업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처럼 농산업 개념을 새롭게 만들고 그 밑에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제품에 제조·가공업, 운송업, 유통업 좀 포함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 정비를 정확히 하고 만들 수 있게 노력을, 부락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주철현 위원** 산림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또 산불이 위험한 시기가 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카모프 헬기 29대 운영 중에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산림청장 남성현** 현재까지는 재고량은 있는데 앞으로의 부품 문제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경은 7대 보유 중에서 3대는 운행 정지하고 4대만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게 되면, 풀로 가동하면 얼마면 이 부품이 소진됩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저희 봄철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년 봄철 산불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정부 내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아까 산불조심기간이 5월까지라고 그러던데 봄철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그동안에 들어왔던 재고품이 있어 가지고 올 산불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게 지속이 되면 내년 봄철에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여기에 제조사가 지금 제재 대상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 단위 기관하고 민간업체가 모여서 대응 협의체를 작년 5월에 만들었다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성과가 없다는데 최근에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회의를 해서 미국의 특별 허가를 받겠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빨리 성과를 내서, 만약에 이게 부품이 없어서

유사시 헬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임차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부품 공급도 어떻게, 그 부분에 양해를 받는 것 해 주시고요.

○**산림청장 남성현** 양쪽으로 부품 공급은 부품 공급대로 하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별도의 헬기 임차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작년 국감 때 카모프 헬기의 독점 공급업체 RH포커스의 비리를 지적한 바 있고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해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분석을 해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RH포커스의 카모프 헬기 부품 공급 가격이 일반 민간업체를 통해서 공급한 것보다 2배 내지 3배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렇게 되면 그 가격에 납품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18년 RH포커스 로터 마스트 봤더니 산림청에는 45만 4300달러에 납품을 했는데 민간이 구입한 것은 19만 달러에 구입을 했어요. 또 하부 로터 블레이드, RH포커스는 38만 달러에 공급을 했는데 민간은 13만 달러에 공급을 했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폭리인데, 제가 보기에 산림청이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이유가 도대체 뭘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정부 내의 여러 가지 관련 규정상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일부 실무회계 책임과 연계해서 한 겁니다.

○**주철현 위원** 조달청 평계를 많이 대시던데 관세청에 확인해 보게 되면 수입 가격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2배, 3배 폭리를 씌우는 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이걸 눈 뜨고 뻔히 방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심한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앞으로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 조달청 등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대책을 좀 부락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주철현 위원**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법안을 내긴 냈는데 지역농협

조합원 수가 지금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농협은 문제가 없는데 축협이 지금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200명.

○**주철현 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축협은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1000명 이상입니다. 품목별 조합이 200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1000명입니다, 품목이 200명.

○**주철현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축협 116개 조합 중에서 63개 조합이 1000명이 안 돼요. 이게 인가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말하면 인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법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거나 또는 합병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얹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인가 조건에 미달하게 되면 당연히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반적으로 시정에 불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합병을 명하는 것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는 몇십 년 동안 법정 인원수가 부족한 조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고 계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문제를 농협 회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뿐만 아니고 농협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부가 요구할 것도 있고 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것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농촌경제연구원도 지역축협 조합원 수를 5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농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축산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5년에 비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화폐 단위가,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 수는 줄이고 자본금 기준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여지를 뒀더라도 농림부 자체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

인 사람에 대응하는 법인인데 특별법인에 대해서 목숨을 없애는 건데, 사형이나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농림부의 업무처리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마음에 들면 그냥 냅두고 안 들면 취소인데 그 기준이 뭐야?’. 장관 마음대로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하고 비슷한데 이게 규모화하는 게 있고 한쪽에서 현실적으로는 농촌 우리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개선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 주시고, 농림부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행정 기준을 제가 보기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서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관 마음대로, 국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비리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장관 마음대로는 아닌데 하여튼 개선……

○**주철현 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장관 마음대로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장관 마음대로 못 하잖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못 합니다.

○**홍문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데 1년 새에 25% 이상 폭락, 등푼이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우리 주고받은 것도, 말씀하신 것도 아는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축산농가 많은 분들 장관이 직접 만나시고 또 장관실로 오라고 해서 대화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홍문표 위원** 지난번에 두 분이 자살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우농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홍문표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집 중의 한 집을 제가 잘 아는 집인데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300만 원씩 하는 게 15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그동안의 사료값 밀렸던 것, 인건비 이런 것이, 이걸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저는 한우농가의 전체적인 지금 처지의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좀 농림부 주관 부처가, 장관이 걱정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쌀 생산액과 축산의 생산액을 장관님께서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1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축산이 4배가 넘지요.

○**홍문표 위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한 2배 정도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닙니다, 4배 납니다.

아, 2배.

○**홍문표 위원** 2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40%지, 축산이.

○**홍문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쌀 생산액이 8조 4000억 정도 되고 축산이 한 13조 7000억 되는데, 축산 문제도 그렇지만 쌀이 지금 과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여야 간에도 대립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법 같은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쌀이 과잉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께서 이 문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농가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늘 이 상임위 열린다니까 세 분의 전화가 왔는데 농민단체가 얘기하는 현실화와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오는 현실화 또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면 이걸 빨리 하나로 통일하는 어떤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다가, 공론만 하다가 결국은 시간 가는 그런 정책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이걸 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양곡법 같은 것이 지금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나쁘다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국가 정책의, 저는 올해 쌀 정책 어젠다의 1순위로 놓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면

서 결단을 장관께서 내려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홍문표 위원** 그다음에 진흥청장님.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홍문표 위원** 지금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 맞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홍문표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 관습으로만 되어 있잖아. 이것 바로잡아야 돼요.

○**산림청장 남성현** 그건 산림청 소관입니다, 위원님.

○**홍문표 위원** 아, 착각을 했네. 미안합니다.

이것을 제가 법안도 여러 번 냈지만 산림청에서 청장께서 이것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것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벚꽃은 삼천리강산 가는 곳마다 있는데 무궁화는 보기가 드물단 말이야.

(김승남 간사, 소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 대한민국 국가 정신이 있는 무궁화를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서 청장님이 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여기 위원님들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걸 리라초등학교라고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98%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고 다 썼어요, 학생들이. 이걸 우리가 지금 기성인들이 잘못 교육을 시킨 겁니다. 무궁화가 어떻게, 우리나라 꽃인데 애국가 4절 뭐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벚꽃은 천지에 있는데 무궁화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걸 국가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도 무슨 민족 찾고 국민 찾는 것은 전부 형식상 하는 소리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장관님이 지난번에도 이 세미나에 하시고 많은 분들 만나 가지고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1분 더 드리세요.

○**홍문표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아프리카열병 말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 정부 간에 어떻게 조율을 해서 일원화로 해야 하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환경부 문제 말씀……

○**홍문표 위원** 예, 환경부.

왜 그러나 하면 환경부한테 지난 지난달에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돼지열병이 어느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또 몇 마리나 당신들이 포획을 했는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서, 두 번 물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뻔한 거지요. 이러한 환경부하고 어떻게 돼지열병을 같이 해결하겠다고 농림부가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저희가 중수본 구성을 해서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 환경부도 참여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아니, 이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왜냐하면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홍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무회의에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대한민국에 농림부장관만큼 힘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이것 환경부 차라리 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하겠다든지. 이 사람들 통계도 없다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마 그 회의 참석했던 분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홍문표 위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두 번 질의했는데—내가 그분들 사실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얹는데—없어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즉각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홍문표 위원** 그리고 돼지열병 이것 지금 몇 미터로 하지요,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처음에 500m 이내는 전부 살처분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서 뽑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안 하고.

○**홍문표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샘플로 거기서 찾아내서 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이것 모르고 집단화해서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안 합니다.

○**홍문표 위원** 그건 우리가 과거 한 80년대식이 거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좀 많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홍문표 위원** 진흥청장님, 내가 한 가지 꼭 물을게요. 우리나라 지금 씨종자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홍문표 위원** IMF 때 우리가 사실 거의 많이 팔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씨종자와 외국에 나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우리나라 씨종자가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문표 위원** 다는 통계를 안 내 보셨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홍문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청양고추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그것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지. 열심히 먹으면 우리가 로열티를 내고 먹는 거예요, 고추 하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립적인 농산물 보호는요…… 전부 이것 외국 사람들 돈 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채소 종자는…… 청양고추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우리가 그 회사를 다시 사 왔는데 청양고추는 빼고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채소는 사실상 100% 우리가 자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홍문표 위원** 장관님, 나하고 그 얘기 하려면 시간이 가는데, 지금 채소류에도 우리가 상용적으로 먹는 것 이것도 한 네 가지는 아직도 우리한테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고추는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신종품을……

진흥청, 세계적인 진흥청 아니에요? 좀 만들어 내세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새로운 종자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내가 흥성하고 청양이 옆 동네인데 이 로열티 내기 싫어서 청양고추 안 먹어요.

(웃음소리)

아니, 진짜예요. 그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장관님, 동물복지 관련해서 오전에 이양수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하던 것 보니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난 12월에 조직을 개편해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만들었고 또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를 만드셨어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그런데 몇 가지만 의견을 드리면, 농장동물 복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축산농가에게 개별적으로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족한 점이 보였고요.

다른 하나는 농림부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지자체는 아직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조금 부족합니다.

○**윤미향 위원** 부족하지요. 그래서 전국 255개 지자체 중에서 동물복지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이 광역 11개·기초 84개,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계속 민감하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소나 물고기 같은 동물을 이용한 축제, 이 문제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 가이드라인들도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농림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먹는 것은 동물 보호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윤미향 위원**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들, 가이드라인들 이런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교육·환경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미래 교육에도.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하나는 공혈건 관련해서 조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시지요, 공혈건과 헌혈건의 차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그렇지요.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 설명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혈건 혈액은 돈으로 사고 팔리기도 한다라는 것도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병원에서 지금……

○**윤미향 위원** 반면에 헌혈건은 반려견들이 반려인과 함께 헌혈을 통해서 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농림부는 공혈건 수 등 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입조처에 조사를 해 보니까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혈건이 약 700마리고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혈건이 약 250마리, 공혈묘도 약 40마리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중에 동물 혈액제제 품목 허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강제로 채혈되는 공혈건 혈액의 상업적 이용 문제나 또 열악한 채혈환경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라든가 또 영국의 경우에도 동물 채혈에 대해서는 국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립허가 없이는 소매유통도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선진적인 제도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동물 혈액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에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혈건을 대량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는 불렀지만 동물단체들은 뺐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윤미향 위원 아마 검역본부가 진행을 해서 모르실 텐데 앞으로 농림부가 이 문제도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혈건 문제 대책 마련을 시작하셔서, 선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꿀 겁니다.

○윤미향 위원 그것은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동물복지가 아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윤미향 위원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분만 더 주세요.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미리 부락을 드립니다.

산림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산림청장 남성현 예.

○윤미향 위원 제가 불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올진 산불 피해로 인한 긴급벌채가 피해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윤미향 위원 이 화면은 올진 산불 피해로 인해서 긴급벌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면 중 하나예요.

보시면, 저희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침엽수와 활엽수가 다양하게 자라고 있는 숲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산불 피해지역 긴급벌채 작업지시서를 보면 소나무 또 잣나무 등 침엽수 피해목은 벌목하고 생육하는 활엽수는 소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벌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계속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잘려 나간 나무들을 보니까 작업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습시다.

벌목된 일부 나무들의 밀둥 사진인데요.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니까 첫 번째 불에 탄 소나무 사진을 빼고는 신갈·굴참·느티나무 등 모두 활엽수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현장 점검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맨 위 시커먼 나무 사진과는 다르게 불에 탄 흔적이 없는 나무들이 벌목됐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화나 피해를 감안할지라도 불에 탄 흔적이 전혀 없고 주변 지역도 멀쩡한 곳이 너무 많았어요.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희 보좌진이 답사 다녀온 긴급벌채지 지역의 작년 11월 촬영 사진이에요. 시기상 산불 이후 사진이라는 게 명확하고요. 그런데 불에 탄 나무는 보이질 않는데, 멀쩡한데 긴급벌채 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 싹쓸이 벌목을 해 버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처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에도 가 봤는데, 사진이 인근 긴급벌채목이 모이는 곳인데 나무 크기로 봐도 모두베기 된 활엽수들이고 또 대부분 산불 피해 입지 않은 나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루어지고 있을까?

1분 한 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안 돼요.

○윤미향 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그냥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육성으로 하십시오.

○윤미향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그건 바로 조림 또 숲아베기, 풀베기 등 고정 일거리가 생기는 그 이유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긴급벌채라는 명목하에 멀쩡한 나무들이 싹쓸이 벌채되고 있는 상황, 지금 계속 우리가 탄소흡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좀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긴급벌채 지역들에 대해서 설계대로 제대로 벌채가 진행된 건지 또 살아 있는 나무가 벌채된 건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산림청장 남성현 예,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래서 긴급벌채사업 집행지침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계획 마련을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다음에 이왕 이렇게 된 것 한

마디만……

농진청 청장님!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윤미향 위원** 지금 농약 시험 및 등록 권한이 농진청에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농약의 독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윤미향 위원**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제에 사용되었던, 지금 되고 있고 올해는 조금 삼가겠다고 하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이게 지금 유럽 지역에서는 고독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독성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과정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이미 이것이 고독성이어서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꿀벌 실종과도 연관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런 목소리들을 저는 정부 각 기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우리 기준과 다르다, 우리는 저독성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이 만약에 저독성으로 판명됐다면 이제는 왜 유럽 사회는 그것을 고독성으로 하고 있을까, 정말 이것이 기후위기에 우리 생태계 교란에 문제점은 없는가 또 꿀벌 생산업자들에게 이것이 막대한 피해는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농진청에서 각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청장님, 혹시 제가 한 말씀에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이번 주에 항공방제를 전면적으로, 헬기에 의한 항공방제는 금지하는 걸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외에 부득이 심한 곳은 드론이나 지상방제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차장이 직접……

○**윤미향 위원** 보고해 주시나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담당 국장이나 차장이

별도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윤미향 위원** 남은 벌채 문제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벌채 문제는 현장 조사를 저희가 한번 강화해 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정식 정시간 하시고 1분을 더 드리는 건 마무리해 주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이크가 꺼지면 조금 더 빨리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뜻이었는데 오늘 윤미향 위원님 오래 잘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윤미향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제재를, 제가 그냥 마무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위원장 소병훈** 다음은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자 신문 보도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반려견 슬개골 탈구 수술비가 서울은 310만원, 성남에 가니까 150만 원, 앞다리 골절 수술비도 200만 원, 유선종양·자궁근종·중성화 수술은 280만 원.

또 기사 안의 사례를 보면 피부염이 발생해서 항생제 주사하고 연고 처방을 큰 병원에 갔더니 23만 원을 내라 그리고 작은 병원에 가니까 6만 원을 내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 치료비보다 어떤 것은 더 비싼 게 있지요. 그렇지요? 진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막대한 반려동물 치료 비용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가구 수가 600만 가구,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빨리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돈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도 못 키우는 세상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 해결책은 표준수가제도라든지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펫보험 활성화…… 장관님, 이것 지금 잘돼 가고 있습니까, 펫보험 활성화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제 단계별로 밟아 가야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진료비 문제는 우선 몇 가지부터 제시하도록 어떻게 돼 있고……

○**안병길 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한번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단계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러다가 이 정권 다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래서……

○**안병길 위원** 작년 9월 달에 농림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보험단체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제가 보니까 회의 딱 두 번 했어요, 지난해에. 올해는 회의 계획도 없고,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물론 제가 모르는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바로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계속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부 언론 보도 이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펫보험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참조할 수 있을 정도로……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하려면 단계, 단계 진료수가 표준화부터 시작해서, 그것부터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진료기록부 발급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제 이번에 국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니까 좀 빨라질 겁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국정과제로 해 놓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언론의 이런 보도들에서 이게 농림부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또 수의업계에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듣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의업계의 의견도 저는 잘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럼요.

○**안병길 위원** 경청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요.

○**안병길 위원** 가시적인 그런 진척 사항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냥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점점을 하시고 국정과제로 해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점검을 하고 있어요.

○**안병길 위원** 600만 가구가 지금 반려동물 가구로 돼 있는데 수술비가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병원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국정과제로 하겠다고 내세워만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속도감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내부 협의체에 동물보호단체들도 들어와 있고,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빨리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장관님 뭘 가지고 속도가 나시는, 속도 나는 게 있으면 사무실로 이런이런 일을 했다는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다는 거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도 농협의 성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갑질 논란, 여러 지적이 있었고 또 주철현 위원님 농협의 인가 기준 관련돼서도 말씀이 계셨고, 보니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도 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 특히 농협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셨어요. 말씀 보면 농협이 더 이상 농

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횡령과 비리의 온상이 된 채 일부 기득권들을 위한 카르텔이 되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농식품부도 농협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차제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동안에 물론 개혁이 있었습시다만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들 저도 뒤늦게 와서 보니까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치밀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손봐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식품부도 같은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농협 개혁과 관련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될 때 함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리고 제가 내용을 듣고 있는 거는……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그거 부탁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우값 폭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급이 적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요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시다만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제 산지가격과 소비가격이 연동화가 돼야 나름대로 그게 시그널이 돼서 또 수요가 창출되기도 하는데 산지가격하고 소비가격하고 갭이 산지에서는 30% 폭락인데 소비자가격은 6~8%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농협을 통해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걸 그냥 세일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연동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협이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 12월 26일 정읍에 오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재해 났을 때.

○윤준병 위원 재해 피해 오리축사 방문할 때 방문하셔서 약속했던 내용 중에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건데 ‘오리축사 현대화사업 제대로 챙겨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건 저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여기서 구두답변 어려우실 테니까 서류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재해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할증 문제니, 좌우간 체감하는 내용이 농민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해보험과 관련된 근본적인 개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보험 성격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리고 조사료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조사료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글썄요,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나오는 게 없고……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가정이기는 한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거는 하여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춧값 급락 관련해서 지금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정부가 김치국가명·지리적 표시제 이걸 한다고 하면서 지금 고추 들어간 거, 수입산 고추 이거 좀 관리를 앓고 가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할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표명하고 있어요.

1분 더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수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병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고추 생산업자들의 애환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윤준병 위원 또 앞에서 우리가 실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시장격리 의무제하고

예전의 쌀 변동직불제 내용하고 대비해 보면 실제 쌀 변동직불제는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조건부 제도이고 무제한 제도가 아닌 초과생산량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내용이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자들은 좀 절제된 내용으로 언어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정책에 관련된 내용에 입장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팩트는 정확하게, 제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리고 그 내용하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어떻게 무제한도 아닌데 무제한 수매라고 그리고, 조건부로 일정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무조건적인 수매라고 이렇게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요, 그 부분 농식품부에서도 공익광고하면서 그런 표현도 있던데 그런 내용이 제대로 걸러지고 객관적인 내용 가지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리고 저희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변동직불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접 비교하시면서 변동직불제가 더 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면에서 강합니다. 뭐냐 하면 농가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변동직불제가 오히려 더 그 당시 기준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양곡관리법 이걸 의무화하는 게 법상으로는 엄청 강한 조치지요. 엄청 강한 조치인데 농가 소득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조금만 제가……

○위원장 소병훈 아니아니, 그거 더 하지 마시고. 그거라면 하실 말씀이 많고 저도 많습니다.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그건 오늘 서로 질의응답 중에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진청장님께 지금 농진청에서 해외에 기술협력차 나가 있는 KOPIA, 나라가 22개국인가요, 23개……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23개국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23개국.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KOPIA의 기술협력 상대 국가들이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많이 들습니까, 그런 말씀?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많이 듣고 있고 해외 공관에서 늘려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어떤 국익 차원에서도 저는 예산을 마련하고 인원을 보충해서 매우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은 힘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출장을 갔다가 거기 농림부장관 만나는 자리에 KOPIA 현장 소장 함께 갔습니다. 근데 저도 좀 놀라웠던 게 도미니카의 주곡, 주식 중의 하나가 감자인데 감자 수입 때문에 감자 수출국의 사정에 따라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책임자가 2025년까지, 우리 씨감자 개발로 2025년 이후에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자급을 하겠다 이걸 그 농림부장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농림부장관도 매우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그 반응을 보고 우리 농업기술이 좀 더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기술 공여를 받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갚는다는 생각으로 좀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예, KOPIA 센터를 지금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요. 지금 한 해에 보통 1개소 정도씩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KOPIA 센터를 1개국에 하나씩만 두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가별 맞춤형도 있어야 되지만 주제별로 지원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식품부하고 같이해서 아프리카에다가 저희가 라이스벨트(Rice Belt)라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종자들을, 아프리카

에서 검증되어 있는 품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쪽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식량자급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종자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그렇게 우리 종자 개발, 그 지역의 현지에 맞는 종자 개량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정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왜 우리나라는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식량의 주 품목인 쌀·밀·옥수수·콩 놓고 볼 때 쌀만 90% 조금 넘고 밀은 1% 미만, 옥수수도 1% 미만, 콩은 조금 늘어나고…… 이 종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책의 문제입니까? 왜 이 수준밖에 우리 식량자급이 안 되나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우리 국가가 지금 처해 있는 농지의 구조라든지 영농의 구조가 그동안은 저희가 쌀을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쌀에 집중을 해서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쌀의 자급을 이룬 대신 상대적으로는 밀이라든지 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공급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의 자급률은 지금 현재 있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신 밀이라든지 콩의 자급률을 높이면 전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종자라든지 아니면 재배법이라든지 또 농기계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작지가 160만ha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절대농지라고 하는 쌀농사를 주로 짓는 데가 70만ha, 아니 80만ha 정도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80만ha에 우리 밀·옥수수·콩, 물론 다른 원예작물들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배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걸 식량안보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우리 사정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어떠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밀, 우리 수입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 점 몇 %지만…… 두 군데 합치면 95% 수입합니다. 그중에 한 나라만 이상이 생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걸 예

상한다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작지에 밀·콩·옥수수는 경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자 개량도 농진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지금 이미 밀이라든지 콩,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용도별 종자들은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작지를 그냥 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지이용률이 100%가 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경지이용률이 높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논 같은 경우에 주로 수도작을 많이 하는데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건 밭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작으로 적합한 농지하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곳과 이게 경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고 그 대신 밭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갖춰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 많이 하셔서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소병훈 죄송합니다.

○최춘식 위원 산림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장암동 쓰레기장을 자일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일동으로 옮기게 되면 광릉 국립수목원 5km 반경 내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해가 크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베트남 정부가 생물권보전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유네스코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가지고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릉수목원은 2010년도에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은 소각장 설치하는 도로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수목원 차원에서 포천시와 공동으로 소각장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수목원에 대해 가지고 산림청이

명확한 입장을 내 줬으면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국립수목원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같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실제로 이거 의정부가 아직 장소를 확정해 준 아니지만 사실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조사도 좀 필요한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쓰레기 소각장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산림청 차원에서 한번 짚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다음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쪽의 안전점검 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C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C등급은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D등급·E등급은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급히 조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금년도의 농식품부 예산을 보니까 저수지 보수와 보강에 대한 사업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450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이 위험도에 대한 감지하는 체감온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에 비해서 재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보장해 나가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매년 안전점검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 D등급·E등급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전국에 1706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만 7000군데요.

○최춘식 위원 아, 1만 7000이요.

여기에서 D등급·E등급이 700곳이 나왔습니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정도 됩니다.

○최춘식 위원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터지게 되면 옆에 피해가 굉장히 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와 접근되는 데도 많고 해 가지고 좀 심각하니까 다시 한번 D등급 이하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최근 5년간, 17년도부터 22년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40억 원이 넘는, 지금 적발 금액이 그렇고 20억 원이 넘게 회수가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아예 반환해야 될 자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형태가.

○최춘식 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직불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반 정도가 회수 안 됐는데 이거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회수를 해야지요.

○최춘식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예.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정말 이거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명확히 분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보니까 산림청이나 농진청 같은 경우는 회수를 다 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농림부 쪽에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금년에 직불제를 17~19년 제한도 풀었고 약 4000억 가까이 더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전 점검, 현장 점검 이걸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저희 의원실로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금 3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야 하나 다섯 분 정도 3차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일이 급하신 분들은 잠시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용 전기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하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료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농업용 전기만큼은 정액제로 인상을 해 가지고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아주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업용뿐만 아니고 전체를 정액으로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은 분모가 작으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지요.

○**신정훈 위원** 예, 정액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차례 인상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전기료 인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번에 5.5원 올린 걸로는 약 1133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올린 걸로는……

○**신정훈 위원** 2300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습니다.

○**신정훈 위원** 심지어 소위 말해서 두 차례의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3500억 정도의 농업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탄이지요,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이번에 또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사실 3분의 1만 올린 거지요.

○**신정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심

각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기료 인상을 해 놓고 지금 집중적인 위약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식에 반하는 단속기준 적용 그리고 위약 농가는 5년간에 걸친 위약금을 물게 됨으로써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하여튼 농가들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단 사실상 계약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최대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정훈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야기 들으셨듯이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 되고, 벼는 되고—조국은 되고—가공된 쌀은 안 되고 이런 개념들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제가 말씀 조금만 더 할게요.

심지어는 충청도에 있는 화훼농가는 재배를 해서 화훼를 판매하는 것은 되는데 관람해서 관람료를 받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6차 산업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래서 위약금 6억 이상을 문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신정훈 위원**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농업용 전기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시지요? 농업용 전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압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농사용(값)이 있고 (을)이 있지요.

○**신정훈 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농업용 전기가 아니에요, 실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농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농사용 전기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농업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고요. 이게 산자위라든가 농해수위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분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해주시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희도 그동안 수없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전의 적자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농사용에 적용하는 게 그 사람들 기본 생산비에서 반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입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한데……

○신정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계청의 산업분류표가 있습니다. 산업분류표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업, 농사 플러스 농사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재배업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업에 국한되어서 적용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전기로 개념을 정확하게, 사실 법률 어떤 용어에도 없는 ‘농사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답변 들으면서 장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농해수위에서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한전과 산업부에서 ‘농업용 전기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여러 위원들한테 와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무 부처인 농림부에서 입장이 좀 더 분명하게 돼야지 이번에 이런 혼돈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용 전기’라고 분류되어 있는 법률 용어를 ‘농업용 전기’라고 하는 표준 용어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표준 용어로 바꾸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미 FTA 2018년에 재협상할 때 지금 RPC 있지요. 미국중합처리장이 건조하고 보관하는 건 농사용(을)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런데 도정하는 거 있지요. 도정하는 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산업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농사용으로 하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쪽하고의 형평성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산업용 적용을 그대로 하되 2분의 1만 적용을 하겠다,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지나 똑같아요. 농업으로 해서 이렇게 광의로 해석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기를 담당하는 저쪽에서는 이쪽에 너무 비용도 안 되는 쪽에서, 비용의 3분의 1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 그걸 상당 부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 워낙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담당, 그러니까 한전에서 처음으로 농업용 제도를 좀 바꾸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장관 답변을 보면 저는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마는 좀 더 전향적으로 농림부의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마지막 전향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입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원장 소병훈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 때 제가 위기의 양봉산업 문제 지적했잖아요. 응애병 때문에 집단 폐사가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게 더욱더 피해가 크다고 그래요. 상황 파악 좀 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계속 전문가 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어기구 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농가가 어느 정도 농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집단 폐사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리가 봉군으로 한 250만 봉군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

은 40만 봉군에서 50만 봉군은 피해를 봤다. 다만 이게 2월 말 정도 돼야 우리가 그걸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여기구 위원** 우리나라 양봉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2만 농가 정도 되지요.

○**여기구 위원** 2만 농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봉군 전체로는 해마다 좀 다르지만 이백오륙십만 봉군이고, 밀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구 위원** 지금 거의 한 80%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전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개별 농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구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농림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사실은 제 친한 친구도 전업 양봉농가입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거지요?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수시로 제가 정보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수농가도 그렇고 양봉농가도 산업이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지자체하고 진흥청하고 우리하고 검역본부하고 사실은 연일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구 위원** 어떤 구체적인 대책 한 가지만 얘기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 우선 가장 급한 게 성주의 참외농가 이런 농가 있지요.

○**여기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시간별로 이게……

○**여기구 위원** 지금 대책이 전혀 없어요. 참외 얘기를 왜 꺼내니까? 양봉농가 생산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품목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양봉농가가 주장하는 것 들었지

요?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 해요, 그 양반들이 세종시에 와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지금 상환해야 될 게…… 아, 그것은 인삼이고. 어쨌든 입식비 지원해 달라……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경영자금 있잖아요, 융자 지원. 이거 1000만 원인데 올려 달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다음에 재해로 인정해 달라 그런 것……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걸 해 줘야 돼요, 자꾸 참외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구 위원**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 양봉업자들 축산경영자금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어려우니까 이걸 5000만 원까지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잖아요, 꿀벌이. 그렇지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소, 돼지 다음에 양봉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양봉직불금을 검토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양봉산업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 한 게 없어요. 제가 봤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5년 대책도 세워서 발표했는데……

○**여기구 위원** 법은 잘 만들어 놔더라, 법은. 그런데 지금 4년째 되는데 아무 한 게 없어요. 양봉농가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책 아무것도 마련 않고 있어요. 장관님께서 좀……

지금 쌀값 폭락, 한우 파투, 양봉 파투, 인삼 파투…… 다 파투, 파투를 놓고 있는대요.

장관님, 아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여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산림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숲의 탄소 흡수량은 4600만t 정도

되어집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2050년 되면 1560만t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부에서 NDC 목표를 설정해서 조정한 목표가 3170만t으로 고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목표 달성하려면 지금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예산이 대폭 확대가 돼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대폭 확대해야 되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위성곤 위원 임도인 경우는 올해 한 2500억 정도 되었는데 실제 이걸 투여하려면 한 5800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산림 가꾸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목재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목재이용률은 지금 한 16%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 정부 기간 동안에 25%로 끌어올리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림부는 좀 많이 도와줍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민만 하고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면적 이상을 목재로 하게끔 했습니다.

여기 사무실 보시면 이게 다 목재잖아요, 회의실 탁자 구성할 때. 외벽은 지금 목재가 아닙니다. 이런 외벽, 내벽의 3분의 1은 목재로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공공이 스스로 실제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이용을 합니다.

청장님께도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농식품부나 농진청에서도 새로 사무실을 만들거나 인테리어를 하실 때 거기 들어오는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는 전부 목재로 한다 이런 방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성곤 위원 취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철을 하거나 플라스틱을 하면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각자가 다 노력하는 거거든요. 작은 예산 가지고 할 때 그렇

게 노력하는 겁니다.

일본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목재이용률은 벌써 40%가 넘었지요. 48%인가요?

○산림청장 남성현 42%.

○위성곤 위원 42%입니다.

2008년도에 목재이용률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았습니다. 그 당시 한 16%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16%인데, 일본은 48%를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특별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산림청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이 부처에서 먼저 해야 된다. ‘우리 건축물의 사무실에 사용되는 의자, 테이블 그다음에 벽면 다 목재로 한다. 벽면의 3분의 1은 무조건 목재 루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게 한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실제 목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전 부처에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지자체에 확산하고.

그래서 싸다고 해서 매일 구매하는 플라스틱 의자, 플라스틱 철제 의자 이런 것들을 빼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산림청장께서 한번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안하시면 농식품부가 제일 많이 총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면 되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청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예,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께도 보고를 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전략직불이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루쌀 수요 문제 또 가루쌀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문제 이런 후속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또 밀도 지금 올해 한 6만t 정도 예상이 된다는 보도도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리는 한 5만t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 보도가 있는데, 밀도 보관·저장 또 수요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후반기에 가면 생산돼서, 수확기에 가면 또 가격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농식품부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실 콩도 생산량이 작년에 13만t 정도 생산됐는데 아무래도 좀 더 나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콩 같은 경우는 수매하는 과정에서…… 콩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산지에서 3700원,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0원에 내놓는 분도 있고.

또 정부 수매는, 농협을 통한 수매는 콩 선별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선별기가 부족하다든가 콩 종합처리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뒤처지게 되고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내놓기도 하고 또 수매 가격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좀 잘, 콩·밀·가루쌀 이런 것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향후의 어떤 문제를 줄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까 농사용 전기에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요. 제가 국정감사 때 농촌융복합

업체들 농사용 전기 좀 해서…… 한전이랑 TF 만들어서 산업부랑 하겠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1차 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의견수렴 과정인 것 같아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를 최대한 찾아서, 농사용 전기에 품목 적용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RPC도 있지만 아까 융복합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표준분류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제가 얘기하다 빼먹었는데 농지를 임대차 할 때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임대가 아니고 사인 간에 임대를 하게 될 경우도, 이렇게 할 경우에 아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5년이나 10년 단위로 계약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수수료를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할 때 한 번 떼어 가는 게 아니고 매년 떼어 가는 거 봐요. 5%씩 매년 가져간다는 겁니다. 농지은행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도 5%씩 가져가고 사인 간에 거래가 성사됐을 때도 5%씩 매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 번 계약할 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인 간의 거래 때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농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사인 간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농지은행을 경유해서……

○이원택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그것만 가능하지요.

○이원택 위원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농지은행 측에서 5%씩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기도 내고 사인 간에도 낸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원택 위원 아니아니, 사인 간이 아니라 농지

은행에서 5%씩 매년 가져간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거 대폭 낮추지 않았나요? 제가 대폭 낮췄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원택 위원** 아니,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가져가는 게 적절한 건지? 왜냐하면 계약을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한번 하는데 매년 가져가는 게 적절한 건지를 한번 따져 봐 주시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으로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방금 이원택 위원님이 한 내용은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거 다시 챙겨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할게요.

○**윤준병 위원** 주철현 위원님이 헬기 우리 보조금 받으면 염가로 이렇게 장난친다 하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농식품부에서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래요. 보조금 받는 농기계 구입은 실제 사는 것보다 20% 이상 훨씬 비싸요. 그러면 판매업자들만 완전 정부를 호구로 알거나 봉으로 알고 있는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그 내용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매 비용 보조를 하고 있는데 들어 보면 이모작 하는 농가는 할당량이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모작하는 데 소요되는 양을 제대로 보조를 못 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리고 한해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의 저수율이 50%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섬진강댐 옥정호 여기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농사지을 걸 대비하면 막막한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 지금 비가 안 오면 저수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도 다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섬진강댐관리사업소하고도 연계하고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이 부분을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선 섬진강은 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댐 하류 쪽에 중간중간 저수지처럼 막아 가지고 1900만t을 거기다 지금 저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윤준병 위원** 어쨌든 내용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사철 대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내용을 저수가 제대로 될 건지 의문이 돼서 그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농협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연초에 됐잖아요. 임추위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 몇 회의 임추위에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보고됐고 보고된 인사 초안이 어떤 거였는지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건 저도 사실은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지금 안 되면 어차피 국감 때 한번 보는 건데 이걸 제대로, 어차피 그게 안 되면 정상적인 관리가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서 통제조차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게 내부적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물론 저도 입법적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 통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받을 수 있는 룬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임추위에서 하는 일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글썄요, 제가 한번 가능한지는 챙겨 볼 건데요. 지금 같아서는 그것은 내부규정이라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챙겨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윤준병 위원** 내부규정이 아니고 원래는 규정이 있지요, 금융지주회사법에. 그 내용 임추위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사회에 보고된 내용 다 받으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 다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내용 챙겨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가능한지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삼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소병훈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셔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의 업무현황 보고와 소관 법률안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홍문표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자리를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승남 박덕흠 서삼석 소병훈

신정훈 안병길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미향 윤준병 이달곤
이양수 이원택 정희용 주철현
최춘식 홍문표

○출장 위원(1인)

윤재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전문위원 정연수
전문위원 공춘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차관 김인중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권재한
식량정책실장 김정희
대변인 김정주
감사관 박선우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방역정책국장 안용덕
정책기획관 박순연
국제협력관 정혜련
비상안전기획관 김태주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남근
농식품혁신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관 박수진
식량정책관 전한영
축산정책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농촌진흥청

청장 조재호
차장 윤종철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조남준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산림청

청장 남성현
차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산림복지국장 이시혜
산림보호국장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
산림재난통제관 강혜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7. 안병길 · 구자근 · 김희곤 · 백종현 · 서병수 · 이주환 · 이현승 · 전봉민 · 정동만 · 황보승희 의원 발의)

12월 28일 회부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28. 정부 제출)

12월 29일 회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안병길 · 최춘식 · 김희곤 · 윤상현 · 황보승희 · 박대수 · 김선교 · 이현승 · 유의동 · 윤재옥 · 이종배 · 백종현 · 구자근 · 이주환 · 정동만 의원 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소병훈 · 강득구 · 고영인 · 김승남 · 박정 · 안호영 · 어기구 · 윤준병 · 인재근 ·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회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소병철 · 오영환 · 임호선 · 김영주 · 권인숙 · 김정호 · 이학영 · 안호영 · 정성호 · 진성준 의원 발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홍문표 · 박덕흠 · 윤재갑 · 이용 · 정동만 · 윤한홍 · 조명희 · 권성동 · 정우택 · 엄태영 · 박형수 · 하영제 · 최영희 의원 발의)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정희용 · 주호영 · 김영식 · 정우택 · 최춘식 · 구자근 · 윤창현 · 박덕흠 · 양금희 · 임이자 · 김희곤 · 안병길 · 이달곤 · 김도읍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소병철 · 양향자 · 정성호 · 김승남 · 윤준병 · 윤재갑 · 오영환 · 이병훈 · 안규백 · 정일영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신영대 · 임호선 · 한병도 · 이성만 · 이용빈 · 홍기원 · 안호영 · 장경태 · 전재수 · 이학영 · 김민철 · 김영주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김승수 · 하영제 · 이종성 · 김웅 · 윤한홍 · 엄태영 · 박성민 · 김영선 · 최영희 · 김학용 의원 발의)

이상 6건 2023년 1월 2일 회부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3. 1. 4. 하영제 · 박대수 · 최영희 · 최춘식 · 임이자 · 이채익 · 정운천 · 박성중 · 조수진 · 김용관 · 박덕흠 · 서일준 · 이주환 · 홍석준 · 윤창현 · 주호영 · 한무경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 4. 신정훈 · 강훈식 · 김두관 · 김승남 · 김홍걸 · 서동용 · 서영교 · 윤재갑 · 윤준병 · 이용빈 · 이학영 · 한병도 · 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5일 회부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김승남 · 김병주 · 김영호 · 김용민 · 김의겸 · 김홍걸 · 양정숙 · 유정주 · 윤건영 · 윤영덕 · 인재근 · 정태호 · 최종윤 의원 발의)

1월 9일 회부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 9. 소병훈 · 김두관 · 김민철 · 김병주 · 김정호 · 민형배 · 박정 · 안호영 · 윤재갑 · 이개호 · 인재근 의원 발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 9. 박형수 · 강기윤 · 김정재 · 김형동 · 엄태영 · 유상범 · 윤두현 · 윤주경 · 임병헌 · 조수진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0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우상호 · 김홍걸 · 박홍근 · 양향자 · 이수진(비) · 이용빈 · 이형석 · 정태호 · 조오섭 · 한준호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서삼석 · 김정호 · 김홍걸 · 소병훈 · 안호영 · 양정숙 · 이달곤 · 이상현 · 이장섭 · 홍정민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23. 1. 11. 서삼석·강득구·김정호·소병훈·
안호영·양정숙·윤준병·이병훈·이장섭·
정성호·한준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서삼석·강득구·소병훈·안호영·
양정숙·윤준병·이개호·이병훈·이상현·
한준호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2023. 1. 11. 김용민·최혜영·정태호·김정호·
최종윤·이재정·고민정·문진석·한준호·
민형배·최강욱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김용민·최혜영·정태호·김정호·
최종윤·이재정·고민정·문진석·한준호·
민형배·최강욱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김용민·고민정·김정호·문진석·
민형배·이재정·정태호·최강욱·최종윤·
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1월 12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2023. 1. 12. 윤준병·김정호·신정훈·김성환·
김철민·민형배·김성주·양정숙·안민석·
오영환·이용선·서영교·민병덕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

(2023. 1. 12. 신정훈·김원이·김희재·서동용·
서삼석·소병철·윤재갑·이개호·이용빈·
주철현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 12. 신정훈·김원이·김희재·서동용·
서삼석·소병철·윤재갑·이개호·이용빈·
주철현 의원 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 12. 소병훈·강득구·김승남·김정호·
민형배·박정·서삼석·안호영·여기구·
이인영·허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13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1. 13. 민홍철·강득구·박상혁·박재호·
이상현·임호선·장철민·전재수·최인호·
한정애·한준호 의원 발의)

1월 16일 회부됨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 16. 정부 제출)

1월 17일 회부됨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안병길·구자근·권명호·김석기·
김선교·류성걸·박대수·박대출·백종현·
이주환·전봉민·정동만·최춘식 의원 발의)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이원택·강은미·김승남·김정호·
배진교·소병훈·신정훈·심상정·안호영·
위성곤·이은주·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9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 26. 한정애·김민철·이수진·서영교·
이수진(비)·강선우·윤미향·장철민·윤영찬·
이용우·문진석 의원 발의)

1월 27일 회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 27. 민형배·황운하·김성주·문정복·
박상혁·양정숙·강득구·최종윤·김홍걸·
이수진(비)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임병헌·강기윤·김상훈·김희국·
김영선·구자근·김용관·정우택·김예지·
류성걸·김석기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윤미향·강민정·강은미·남인순·
민형배·배진교·송옥주·신현영·양정숙·
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31일 회부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윤미향·강민정·강은미·김승남·
김종민·남인순·류호정·민형배·배진교·
송옥주·신현영·양정숙·윤영덕·이수진(비)·
최강욱 의원 발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김홍걸 · 양정숙 · 김승남 · 김병주 · 주철현 · 어기구 · 윤준병 · 위성곤 · 최종윤 · 윤재갑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일 회부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이주환 · 김상훈 · 구자근 · 전봉민 · 권명호 · 정동만 · 서병수 · 김용관 · 안병길 · 김승수 · 이현승 · 김학용 의원 발의)

스마트수산물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안병길 · 권명호 · 김선교 · 김석기 · 박대수 · 이종배 · 이주환 · 전봉민 · 박대출 · 강민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회부됨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이주환 · 김용관 · 전봉민 · 이현승 · 권명호 · 하영제 · 정우택 · 김승수 · 김학용 · 지성호 의원 발의)

2월 3일 회부됨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2. 6. 임호선 · 강병원 · 김종민 · 고용진 · 강선우 · 윤호중 · 권칠승 · 이학영 · 이장섭 · 김승남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2. 8. 신정훈 · 위성곤 · 박성준 · 이학영 · 고용진 · 박상혁 · 윤재갑 · 윤준병 · 최혜영 · 한병도 · 최기상 · 서동용 · 서영교 · 김두관 · 김희재 · 조오섭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2. 8. 윤미향 · 송옥주 · 김주영 · 민병덕 · 이성만 · 한정애 · 이수진(비) · 조정훈 · 김정호 · 김종민 · 최강욱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회부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2. 9. 윤미향 · 송옥주 · 김주영 · 김정호 · 민병덕 · 김승남 · 이성만 · 한정애 · 이수진(비) · 조정훈 · 김종민 · 최강욱 의원 발의)

2월 10일 회부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10. 위성곤 · 양정숙 · 이개호 · 신정훈 · 송재호 · 강민정 · 김한규 · 허영 · 최인호 · 김승남 · 서영교 의원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2. 10. 이양수 · 김성원 · 안병길 · 박덕흠 · 홍문표 · 윤창현 · 정경희 · 최춘식 · 지성호 · 노용호 · 정희용 의원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2. 10. 이양수 · 김성원 · 안병길 · 박덕흠 · 홍문표 · 윤창현 · 정경희 · 최춘식 · 지성호 · 노용호 · 정희용 의원 발의)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2. 10. 김도읍 · 윤한홍 · 유경준 · 한무경 · 정희용 · 양금희 · 장동혁 · 지성호 · 김석기 · 박대출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3일 회부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위성곤 · 박찬대 · 김용민 · 문진석 · 양정숙 · 윤영덕 · 김승남 · 이성만 · 이개호 · 최인호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위성곤 · 박찬대 · 김용민 · 문진석 · 양정숙 · 윤영덕 · 김승남 · 이성만 · 이개호 · 최인호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소병훈 · 강득구 · 김승남 · 김정호 · 김태년 · 민형배 · 서삼석 · 서영교 · 안호영 · 어기구 · 이인영 · 허영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위성곤 · 박찬대 · 김용민 · 문진석 · 양정숙 · 윤영덕 · 김승남 · 이성만 · 이개호 · 최인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위성곤 · 김성환 · 신정훈 · 김승남 · 어기구 · 송재호 · 윤준병 · 이개호 · 안호영 · 허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4일 회부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15. 이달곤·백종현·정희용·조수진·박덕흠·김용관·하영제·임이자·박진·김도읍 의원 발의)

2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정우택·박덕흠·이명수·윤창현·최승재·이종성·최영희·조수진·서정숙·허은아·김형동·엄태영·이종배·이장섭·지성호·김학용·도종환·변재일·김기현·윤주경·조은희·임호선·안철수·최춘식·이성만·김용관·박성민·권은희 의원 발의)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김용민·최혜영·정태호·김정호·최종윤·이재정·고민정·문진석·한준호·민형배·최강욱 의원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김용민·최혜영·정태호·김정호·최종윤·이재정·고민정·문진석·한준호·민형배·최강욱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김용민·고민정·김정호·문진석·민형배·이재정·정태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김용민·고민정·김정호·문진석·민형배·이재정·정태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김용민·고민정·김정호·문진석·민형배·이재정·정태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홍정민·강득구·김경협·김민석·김병욱·김영주·김철민·민형배·이용빈·이용선 의원 발의)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이용빈·강득구·김병욱·김병주·김성환·민병덕·민형배·박성준·백혜련·서영교·송갑석·신영대·양정숙·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선·이정문·이형석·조오섭·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6. 허영·신정훈·서영교·이개호·임호선·김병주·박상혁·김철민·강훈식·송갑석·소병훈·최종윤·한병도·정성호·김윤덕·박광온·백혜련·안규백·한기호·김두관·홍익표·주철현·고민정·김희재·이철규·인재근·노용호·권성동·신현영·박정하·김기현·정우택·김영주·유상범·오영환·안철수·조수진·조은희·양금희·최강욱·정경희·이종성·전주혜·우원식·이양수·황보승희·서일준·신원식·윤상현·이원욱·하영제·이주환·장철민·남인순·최인호·강대식·김용관·지성호·정운천·박대출·이용빈·박대수·윤두현·이용·노웅래·송기현·이만희·백종현·최승재·임종성·권인숙·이소영·조경태·우상호·홍정민·이형석·김한정·최기상·김남국·김교홍·윤호중·이종배·조명희·김영진·소병철·송재호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송재호·위성곤·김한규·허영·김민철·강준현·박성민·조오섭·이형석·김영배·임호선·박수영·도종환·문진석·박재호·장경태·이원택·최춘식 의원 발의)

2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2. 14. 한무경 · 박대수 · 정경희 · 윤주경 ·
박수영 · 이인선 · 최승재 · 조은희 · 노용호 ·
구자근 의원 발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2. 15. 김한정 · 강훈식 · 노웅래 · 신영대 ·
신정훈 · 윤관석 · 이용빈 · 이용선 · 이장섭 ·
정일영 · 홍익표 · 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
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2. 15. 윤준병 · 안호영 · 양경숙 · 김철민 ·
이용선 · 한병도 · 양정숙 · 이수진(비) · 이원택 ·
양이원영 · 김태년 · 오영환 · 최종윤 · 김성주 ·
고영인 · 김정호 · 민병덕 · 김원이 의원 발의)

2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